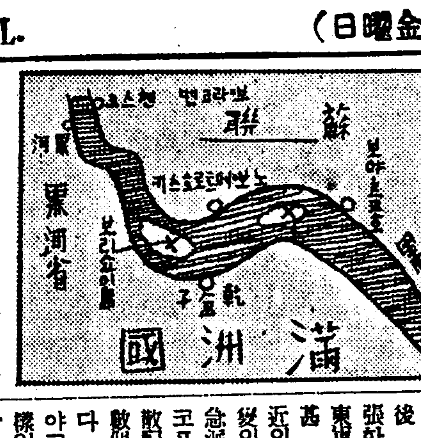
朝鮮日報 夕刊 一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本社定期刊行物◆ 少年朝鮮日報(日曜附錄) 朝光(月一回發行) 女性(同上) 少年(同上)

紛爭現場附近에 蘇聯陸海軍集結

關東軍蘇軍의今後動向注視

北部國境 一帶空氣極緊張



【新京三十日發同盟】三十日乾岔子島의 蘇聯不法侵犯 砲擊事件後 滿蘇國境全線에 亘하야緊張한 空氣가 떠돌게되엿는데關東軍은 蘇聯軍今後의 動向에深甚 注意하고잇다 事件現地 附近의 國境河川上에는 現在數十隻의 蘇聯國境江防艦隊가 蝟集 急派되고 對岸蘇聯領에는 모야코프港을 中心으로 騎兵部隊가分散配備되고 또 廣範한 地域에 散開한 蘇聯軍이 駐屯하고잇다 今回의事件으로 極東軍으로보야코프港을 中心으로 移動하는模樣인데 北部國境河川方面은 三十日深更에 이르러 一般으로緊張되는 空氣가 떠돈다 (地圖는 事件發生地附近)

極東軍總司令 乾岔子向發說

【伯林卅日發同盟】莫斯科에서三十日 伯林에 達한情報에依하면 極東軍總司令와실리·블류헬元帥는 高級幕僚數名을 帶同하고 急遽黑龍江岸、乾岔子에 向하얏다고傳한다 當地에서는 確認할方法은 업스나 이報道에依하면 블류헬元帥는 事件現場一帶를 視察後 善後處置를 講究할모양이다

撤退確約해노코 越境하야攻擊

無誠意와國際正義無視暴露

陸軍中央部의見解

【東京電話同盟】乾岔子南側水道에서 發生한事件에關하야 陸軍中央部에도 公報가잇섯스나 右에關하야 中央部에서는 重光大使와 리트비노프蘇聯外相과의會見에잇서 蘇聯艦艇의撤退가確約된直後 蘇聯艦艇이白晝에 公公然히 越境砲擊한것이니라 日滿軍에對하야 不法攻擊을加하게된것은 蘇聯當局이如何히無誠意하고 國際正義를無視하는가를 全世界에 對하야 露骨的으로 暴露하는것이다 따라이行動에對하야 日滿兩軍이自衛行動을 取한것은 正義를愛好하는 獨立國家로서 當然한義務이다 그리고今後同方面의情勢는오로지 蘇聯側의行動如何에 달려잇는바今後 如何한 事態가 發生하드라도其責任의 一切는 蘇聯側이 負할것은 말할 必要도업다 本問題의 第一段階는 오직同方面에 集結된 蘇聯軍이 重光、리트비노프會見에 依하야確約된것과가티 艦艇의 撤退를 速히 實行함에잇다고말한다

英國言論界衝擊

【倫敦三十日發同盟】蘇聯艦艇의 乾岔子附近에서 行한不法越境砲擊事件에 關하야 關東軍公表가 倫敦에到着하야三十日夕刊의早版에大大的으로 報道되엿는데 各方面이모다 事件의重大性을 認定하고잇다 但 英國政府方面에서는 公報가 未着한것을 理由로 意見發表를 避하고잇스나 極東平和와 歐洲平和의 相關性에서 事件의局地的解決을 希望하고 또此種不祥事件의頻發에 鑑하야 此際根本的問題의解決에 着手할可能性을 指摘하는 模樣이다

米紙도大大的報道

【紐育三十日發同盟】蘇聯艦艇의 乾岔子附近에서 不法侵入砲擊事件에 關하야 紐育의各夕刊紙는 第一頁全面에 新京及東京電報를 揭載하야 大大的으로 此를報道하엿다 最初今回의國境事件에對하야는 米國新聞紙는 冷靜하야 二十八日莫斯科蘇聯政府의 言明을 … 極히적게 取扱하엿스나 二十九日附 新京及東京電報가 「蘇聯艦艇이 砲火를交하엿다」 하자 俄然센세이순을 惹起하엿는데 其推移는 注目된다

一切責任은蘇聯에 斷乎決意도不辭

滿洲國外交部抗議內容

【哈爾濱一日發同盟至急報】三十日午後外交部의 訓令을接한 施履本 北滿特派員은 即時駐哈蘇聯總領事代理쿠즈네초프氏의 來訪을 求하야 今回의 蘇聯側의不法行爲에 對하야 嚴重抗議하는 同時에 今次의 事件은 蘇聯兵의 乾岔子、金阿穆河兩島를 不法占據한以來 事態의 惡化를 極力防止하려하는 滿洲國側의再三 抗議에도 不拘하고 蘇聯側은 依然何等의處置를 取하지안흠뿐더러 不法하게도 艦艇으로 하여금 侵航케한後 砲擊의 暴擧를 敢行하야 我方으로하여금 應戰을不得已하게 한것으로 事態를 斯히惡化케한것은 明白히 蘇聯側의 計劃的意圖에서 나온것으로 一切의責任은 蘇聯側에서 負할것인바 速히 艦艇을 撤收하고 事態의平穩化를 圖하는同時에 乾岔子、金阿穆河兩島의 不法占據를 解消하야 國際河川의 明朗化에 努力하기를要求하야 「蘇聯의今後態度如何로 我方은 國際信義와 平和確保를 爲하야 斷乎한態度를 取하는일이 잇드라도 今後의 一切의責任은 蘇聯側에잇다」는 旨를 嚴重通達하엿다

蘇逆襲的態度에

宮川書記官嚴重抗議

【莫斯科三十日發同盟】쏘베트艦艇事件에 關하야 乾岔子附近쏘베트艦艇事件에 對하야 三十日저녁重光大使에 會見要求가잇서서 重光大使는 午後七時半 宮川一等書記官을 外務人民委員部에 出張케하야 新任駐日大使 가즈틀스키氏와 會見케하엿다 席上가즈틀스키氏는 蘇聯艦艇의 不法侵入砲擊事實을 歪曲하야 도리혀日滿兩軍의 襲擊으로 쏘베트艦艇乘組將士中多數의 死傷者를 낸 旨를 指摘하야 逆襲的抗議를行하엿다 이에對하야 宮川書記官은 쏘베트艦艇의 滿洲國領海內侵入및不法射擊을들어 應酬코 嚴重抗議하엿다 이리하야 會見은 前後一時間에 亘하야 宮川書記官은 同八時半外務人民委員部를 辭去하엿는데 以上의 蘇聯의態度에 鑑하야 兩國外交機關의折衝은 今後도繼續될것으로보인다

不法進入하야 日本兵을射擊

蘇艦擊沈事件詳報

【新京一日發同盟至急報】關東軍發表=乾岔子島에서 이러난蘇聯艦艇事件에 關하야 其後判明된 詳細는左와如하다 旣報한바와가티 三十日午後三時 蘇聯砲艦三隻은 乾岔子南側水道에 進入하야 때마침滿洲國側江岸에서 水浴하고잇든我國兵에 對하야 突然不法射擊을加함으로 江岸警備에當하고잇든 日滿軍의一部는不得已 이에應戰하야 敵艦의 一隻을 擊沈하고 一隻은甚大한 損害를 주어 後瀨에坐礁케하고 他의一隻은彼方에 逃避케하엿다

蘇紙五名死傷을報道

【莫斯科卅日發同盟】乾岔子附近에서 發生한 蘇聯艦艇의 不法侵航砲擊事件에 對하야 타스通信社는 卅日 블라고베쉬첸스크(黑河)對岸에서온 報道라하야 本事件의結果 蘇聯艦隊乘組員中 二名이 戰死、三名이 負傷한 旨를 報道하엿다

四相會議

不法射擊問題協議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一日午前十時부터 近衛首相、廣田外相、杉山陸相、米內海相等이 參集하야 四相會議를 開催하고 乾岔子島事件、特히 蘇聯側의不法射擊을 中心으로重要協議를遂하엿다

金融政策一體化

兩者間意見一致

南總督、賀屋藏相과會見

【東京電話同盟】南朝鮮總督은卅日午後四時 藏相官邸에 賀屋藏相을 訪問하고 津島日銀副總裁를 交하야 여러가지 懇談을거듭하고 同五時 辭去하엿는데 右會見席上에서 總督은 朝鮮에잇서 最近의經濟、金融事情을 詳細說明하고 또津島副總裁도 金融政策의財政經濟政策에對한 現內閣의 意見을開陳하엿다 特히 日本內地와朝鮮、滿洲를通한産業及 金融政策의一體化에關하야는 三者間에 完全히意見이一致되엿다 會見後 賀屋藏相은 左와如히 말하엿다

前般 朝鮮의經濟情勢에對하야 總督으로부터 말을드럿음으로 今日은 主로 經濟金融政策에 關하야 意見을交換하엿다 特히 前般 閣議에서 決定된財政經濟政策의根本方針에對하야 自己가詳細說明하엿든바 總督은 全部同感의 意를表하고 日滿을一體로한 經濟的産業政策樹立이라는 點에서 朝鮮에잇서서도 産業及經濟政策의確立에 極力努力하겟다한다 津島君도同席하야 相互間에 全然意見一致되엿다

本紙定價改正에際하야

文化生活에잇서서 新聞은 飮食物과 마찬가지로 一日이라도 缺할수업는 重要用品임은 말할것도 업습니다。그러므로 新聞紙의 價格을 다른 商品모양으로 輕率히 上下시킬수는 업는것이외다。過去 本紙의 定價를 보드래도 大正九年 三月 四頁創刊時代에 七十錢 받은것을 大正十三年 十一月 六頁로 增頁함에 미처서 겨우 八十錢으로 引上하얏고 그後 昭和四年 十月 八頁로 增頁할때 一圓으로 引上한 定價는 十二頁이된 今日에까지 固守하고잇섯습니다。이것은 新聞의 定價를 오로지 經濟的計算에서 上下시키지 못하는것을 말하는바입니다。

그러나 最近 數年來 世界的 趨勢로 物價騰貴를 招來하고 特히 世界的 木材缺乏에 伴한 用紙의 不足은 新聞用紙의 價格을 奔騰케하얏습니다。試하야 朝鮮銀行 調査의 京城物價指數를보면 昭和七年 一月 一四二이던것은 今年 一月에 二〇三이란 奔騰을하얏고 지난 四月에는 二〇九·二七로 五年間에 約六割의 暴騰을 보앗스며 用紙는 昨十一年 九月以來 八割六分의 騰貴를 示하얏습니다。그러므로 新聞이 이러한 物價속에서 經營을 維持하기는 困難하게 되엿습니다。特히 世界情勢는 日日急迫하야 報道의 使命이 增大하는것은 新聞의 時急한 使命으로 되여잇습니다。이리하야 本社는 其使命을 다하기위하야 不得已 七月一日부터 一個月 一圓二十錢으로 引上하기로 하얏습니다。事情이 이와가티 되엇사오니 讀者諸彦은 充分히 本社의 苦衷을 諒察하사 倍前의 愛護를 끼치기 바라는바이외다。

中央經濟會議

一日官制公布

【東京電話同盟】政府는 財政三原則을 具體化하야 日滿을通한 綜合的産業計畫을 樹立할目的으로 朝野의有力者를모아 中央經濟會議를 新設하기로 되엿는데 右官制는 一日附 左와如히 公布되는同時에 委員도任命되엿다

◀中央經濟會議官制

第一條 中央經濟會議는 內閣總理大臣의監督에 屬하고 그諮問에應하야 左의事項을 調査審議함

一、內外地間의 綜合的經濟政策

一、前號의 政策에關한 實施案

第二條 中央經濟會議는 議長一名、副議長一名及議員若干名으로써 此를組織함

前項의 議員外에 必要할時는 臨時議員을 置할수잇슴

第三條 議長은 內閣總理大臣으로써 이에 當케함 副議長은 企畫廳總裁로써 이에 當케함 議員은 內閣總理大臣의 奏請에依하야 學識經驗잇는者中에서 內閣이 此를命함 臨時議員은 內閣總理大臣의奏請에依하야 官界合議 勅任官中에서 內閣이 此를命함

第四條 議長은 會務를 總理함 副議長은 議長을 補佐하고 議長이 事故잇슬때는 그職務를 代理함

第五條 中央經濟會議에 幹事長及幹事를置함 幹事長은 議長及副議長의 指揮를 受하야 庶務를整理함 幹事는 內閣總理大臣의 奏請에 依하야 關係各廳勅任官中에서 內閣이 此를命함 幹事長及幹事는 上司의 指揮를受하야 庶務를整理함 企畫廳常任參與는 幹事의 地位에 在함

第六條 中央經濟會議에 書記를置함 書記는 內閣에서 此를 命함 書記는上司의指揮를受하야 庶務에從事함

附則

本令은公布日부터 此를施行함

行政機構大改革

張總理佈告

七月一日一齊히斷行

【新京一日發同盟】滿洲國政府에서는 內外의情勢에 鑑하야 七月一日을期하야 中央及地方의行政機構改革을 斷行하엿다 이에 關하야 國務院에서는 張國務總理大臣의名義로 佈告第四號로써 一日左와如히 發布하엿다

我國은建國以來 玆에이미六年 乾綱이日張하고 天庥가日新한다 이를佑함에盟邦의 友援이始終不渝한 信誼로써 이를保하고 政本惟仁、惟愛 五族協和의團結로써 基礎이미鞏固하게되고 國運은日로 發展하는 바이다 今次政府가 內外의情勢에鑑하야 中央과地方과의 行政組織에對하야 其改革을決行하려한다 생각컨대 良法의行은 必히其人에俟하고 實績의擧는 必히其誠에由한다 이로써 政府는 特히材能을選하야 諸理振張의 務로써任하고 晝夜不懈하는勤으로써한다 무릇我國民도亦是 改弦更張의 意를體하고 官吏와 其心을한결가티하야 其力을戮하고 上下의情이 疏通하는바이업시하야 一切의疑懼를免케할것이다 其施政에 對하야 希望잇는者는 遠近大小를莫論하고 條陳하야 政府로하여금 四目을밝키고 四聰을達하야 政通人和의日을 業케하면 建國의理想이 實現하야 無窮할것이다 特히 此에佈告함

康德四年七月一日 國務總理大臣 張景惠

人事·集會

◀鈴川專賣局長 大邱、全州地方局官內巡視를마치고 七月一日午後十時三十分京城驛着歸任

◀齋藤岩藏氏(專賣局鹽蔘課長)七月二日午後四時十五分「曉」로京城發東京에 十日間豫定으로出張

◀荻原三郞氏(鐵道局庶務課長)渡東中이든바 一日午後歸任

◀山本滋雄氏(日本商業通信社常務取締役京城支社長)新任人事次一日來社

◀文在喆氏(普成高普三十五周年記念事業期成會長)歸鄕中이든바 今朝入京

八面鋒

◇蘇滿國境의風雲、解消되얏든가 생각하면 또다시一陣黑雲이뭉게뭉게

◇장마人철日氣다하면 晴雨를어떠케 豫想할수잇슬가。

◇佛內閣의 財政獨裁法案可決、第一着으로『프랑』平價를 再切下。

◇돈갑시 싸지는것도 世界大勢의하나이니 佛蘭西만이 원통히생각할것은 아닌노릇

◇딸기따먹고 醫學마지膳生이잇다。『이브』의 罪業을 傳承햇다할지라도、罰의程度가 過치아니할가。

◇規則은 … 必要하나、… 더욱必要한일。

秩父宮殿下

찐公午餐會에臨御

【倫敦卅日發同盟】秩父宮殿下께서는 英國皇弟찐트公殿下의 御招待로 卅日午後一時半「벨프레이뷰」의 찐트公私邸에 臨御하시와 公同妃兩殿下와 御作別의午餐을 함께하시고 御歡談하신後 午後三時半 御宿舍에 御歸還하시엿는데 夜에는 御渡英中 接伴役으로 手苦한 록크卿夫妻의招待를 受하시고 松平式部長官 前田驛務官、山座 御用掛를 거나리시고 「아렌누스가던」의同邸에서 열린 晩餐會에臨御하시엿다 殿下께서는 七月二日 蘭井參事官 松井事務官을 거나리시고 버밍감 工業地帶를 御視察하실 御意向이신대 만체스터、리버풀兩市에서 御一泊하실 御豫定이시다

佛國政府、法貨의 平價再切下決定

新平價는諸情勢檢討後決定

財政緊急獨裁法案 遂上下院通過

【巴里三十日發同盟至急報】쇼ー탕新內閣은 三十日夜 國務會議에서 法貨現行平價를 廢棄하기로 決定하고 新平價는 追後決定할터이라한다 그런데 法貨現行平價는 一九三六年十月一日의 新貨幣法에 基하야 一法의金純分品位一千分之九百에 對하야 四十九미리瓦乃至四十三미리瓦이다

【巴里三十日發同盟】카뮤·쇼ー탕氏를 首班으로한 新人民戰線內閣은 法貨未曾有의危機를 打開하기爲하야 議會에 緊急獨裁權을 要求하엿든바 右翼各派로부터 猛烈한攻擊을 맛낫스나 쇼ー탕首相 以下의 必死의奮戰으로 三十日早曉三八〇票對二二八票로 下院을通過하고 同日午後一六七票對八二票의壓倒的多數로 上院을通過하엿다 政府는 이新財政全權法에 基하야 即時法貨對策에着手하야 三十日夜 國務會議에서 먼저法貨의 平價擴散再切下를 斷行하기로 決定하엿다 但 아직은 곳 新平價를 決定치안코 더욱 內外諸般情勢를 愼重檢討한後에 決定發表하기로 되엿다 新財政全權法案의 內容은 左와如하다

一、政府는 國務會議에서 檢討된 緊急令에依하야 一九三七年八月三十一日까지 左記財政的諸手段을 講究할權限을 賦與한다

一、國家의 信用을 毁傷하는 一切의行動을 防遏함

一、投機取引을 抑壓함

一、國內經濟狀態를改善함

一、豫算의均衡化

佛財政調整緊急令內容

【巴里三十日發同盟】쇼ー탕新內閣은 三十日夜緊急閣議를 開催하고 同日疾風迅雷的으로 上下兩院을 通過한財政全權委任法又法貨危機應急對策을 採擇하야 直時緊急令으로서 公布하엿다 그內容은 左와如하다

一、一九三六年 十月一日의 貨幣法의法貨金純分에 關한 規定을 廢棄함

一、法貨新金純分및 法貨兌換條件은 追後命令으로써 決定함

一、新法定平價決定까지 法貨의 外國에對한 比率은佛國側平衡資金操作으로 安定을 企圖함

一、一九三七年六月二十八日의 金및 外國爲替商業債務의支拂方法은此를廢止함

一、佛國銀行의 政府에對한 資金融通限度를 새로百五十億法을 增加하야 總額二百五十億法으로함

一、佛國銀行金準備의保護 但 爲替會理處分의方法에 依하야 此를行함

佛國各市場 一日부터再開

【巴里三十日發同盟】佛國株式、爲替、商品各市場은 政府의命令에依하야 二十九日三十日兩日休場하엿든데 新財政全權法案도三十日議會를 通過하고 政府의緊急對策도 決定되엿음으로 明一日부터 取引을再開하기로되얏다

法貨危機에對한 英藏相言明

【倫敦三十日發同盟】英國藏相 사이먼氏는 三十日午後下院에서佛國政府의 法貨危機對策에 關하야 英米佛三國政府의 態度에 對하야 다음과가티 言明하엿다

佛國政府는 英米兩國政府에對하야 今後어데까지 緊密한 協力을 繼續할 意向인 旨를言明하엿다 此는 英國政府로서도同樣의 對策을 希望하는 바이다 余는佛國藏相보네氏와 米國財務長官모겐소氏와 不絶히緊密한連絡을取하야 善後策을考慮할터이다

佛政府、三國協定脫退乎

【東京電話同盟】紐育二十九日發日銀着電에依하면 米國大藏省은 今日 佛國政府로부터『當國國內事情의 逼迫으로 三國通貨協定에서 不得已 脫退하게될는지도 알수업다』는旨의 公式通報를 接하엿다한다

大野政務總監歸任

全北、忠南地方巡視中이든 大野政務總監은 豫定의 視察을 全部完了하고 今一日 午後三時廿八分 京城驛着列車로 歸任하얏다

實地 仁川大聖村近水仁鐵道驛五丁位 將來有望地 所約九百坪 內地人의爲特別安價讓渡 希望者 京城府櫻井町二丁目十九番地 三宅方御照會待望

燦雄아 速히歸家하여라 京城齋洞町一八 父 鄭玟完

女外勤店員 若干名採用、履歷書寫眞郵送 面會日時는通知함 食料品部勤務 本町二丁目 朝鮮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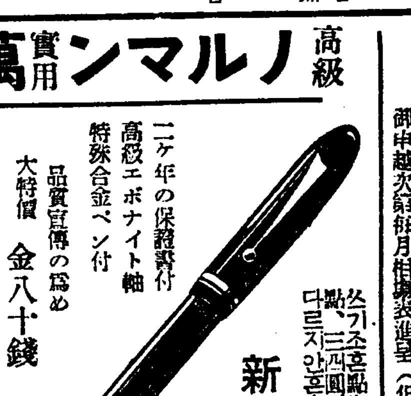
古書 東洋文獻高價買入 南大門通一丁目 金星書院

朝報案內

白菜種 豫約店·行商員急募 … 山東農園出荷部

萬病一如의偉效를發揮하는 朝鮮仙藥 精力更生 九仙湯エキス 價 (三十日分 一圓八十錢 六十日分 三圓二十錢 百日分 四圓五十錢) 本舖 京城府立運動場前 四元深山藥草研究所 振替京城二三五六二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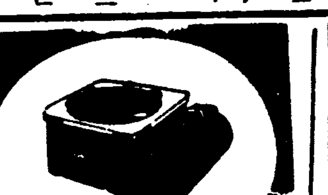
高級 ノマルシ 實用 萬年筆 二ヶ年の保證付 高級エボナイト軸 特殊合金ペン付 品質宣傳の爲め 大特價 金八十錢 (三錢切手廿七枚) 新製品!! カタログ贈呈 連鎖店 加入希望者는三錢切手二十五枚同封申込次第貨物見本及規則書急送한다 … 各連鎖店名有文具店에잇다 本舖 三京商會



金城號の子供乘物 (特約店募集) 子供乘物の百貨 御申越次第每月相場表進呈 (但し店名捺印の事) 高級折疊式乳母車 高級塗乳母車 籐製乳母車 製作現金 卸問屋 小供用自動車 〃二輪車 〃三輪車 〃スケート 〃スベリ台 木馬各種 名古屋市西區上畠町(電車通) 遠藤明商店 電話西三九七一番·振替名古屋二〇一四〇番

寫眞機 特約店 五十錢より廿四圓迄三十餘種 ●カタログ郵券三錢 (住所明記の事) 一邑一軒の特約店募集(資本金十圓以上) ◀咸北淸津府新岩洞七九……昌盛商店 ◀京畿道江華邑內……承華書店 ◀平北寧邊邑……藥山堂藥局 ◀咸北會寧邑驛前通……東興堂 名古屋市東區大津町 東京カメラ製作所

マルハチ特殊瓦斯器 せる異抜き 斬新進步 … 名古屋市中區南武平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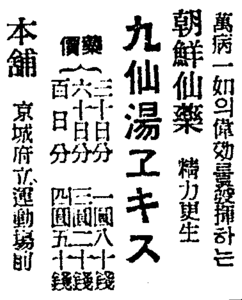


고초가루都賣 金千壽商店製粉部 時價表請求하시면 送呈하겟슴니다 振替金山一五三五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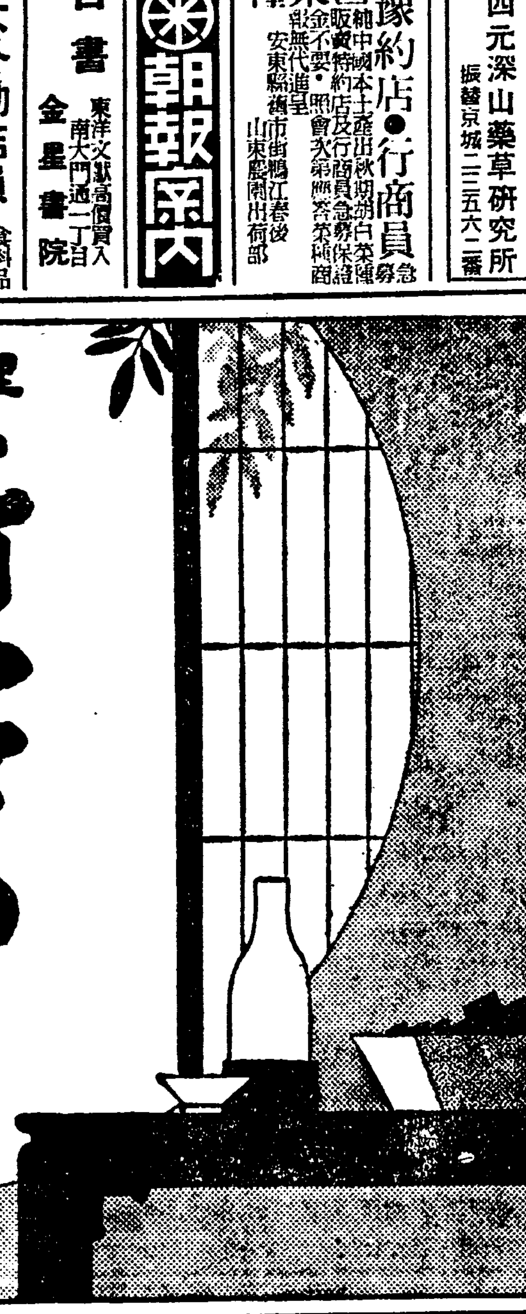
醫學博士 鄭求忠 外科 X光線 京城鍾路三丁目十六 (入院室完備) 電話光化門六八五番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業社 電光一一五九

電醫養成全國無試驗開業 醫師同樣聖業 全鮮唯一認可 (失業絶無成功必至) 朝鮮高等電醫專門學院 學則送呈 釜山府榮町一丁目三三 認可



理研清酒 新世界 宿醉치안함 窓박게바람도조코 卓上의술도조코 醉한맛은한결더해 大鮮釀造株式會社



ヤンマーヂーゼルエンヂン 內燃機界ノ覇王 絶對炎火灑其他準備操作ノ要セズ 能ク燃料消費量ヲ絶對僅少 一時間一馬力當リ一錢強 型錄贈呈 大量製產·在庫豊富 京城府京城驛前 株式會社 山岡發動機 京城支店 本社·大阪市北區茶屋町 電話本局一〇〇三番

三—四馬力 五—六馬力 七—八馬力 十—十二馬力 十五—十七馬力 十—十二馬力 十四—十六馬力 十五—十七馬力 二十一—二十三馬力 三十六—三十八馬力 四十—四十四馬力 三十—三十三馬力 五十—六十馬力 七十五—九十馬力 百—百二十馬力

度數制實施初日

通話數 三分一로激減

公衆電話는料金이싸진까닭도잇서

利用者四倍로激增

三錢의緘口令

오늘부터 드디여 경성에 전화도수제가 실시되엇다 한통화하는데 삼전식이 든다니까 모든일제히 그야말로 자동적으로 그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엇다 삼전의돈이 전화도수를절약하야 무서운것도것이려니와 안걸어도조흘전화가 얼마나만혓는지가 실증되셈이다 경성중앙전화국(京城中央電話局)으로 일일오전중의 도수제도하의 시내전화통화수를 알아보니 다음과갓다

즉 광화문분국(光化門分局)에서 교환한전화가 일일오전령시부터 정오까지에 칠천구백륙십팔통인데 도수제이전의 약삼할밧게안되여 칠할이줄어들엇고 룡산분국(龍山分局)은 역시정오까지 삼천칠백팔십일통화로서 그전의 약 삼할밧게되지안코 본국(本局)에도 사할밧게안되엇다 이와반대로 일일경성도수제실시와함께 시내의공중전화(公衆電話)료금이 십전으로부터 오전에 내리게되고 통의정(通義町) 혜화정(惠化町)등 열세곳에 공중전화가 신설되여서 시내에 마흔한곳의 공중전화가 잇는만치 이공중전화의 리용자가부쩍 늘어젓다 일일오전령시부터 오후한시까지에 시내에서 공중전화를 리용한통화수가 삼백사십팔통화에 달하야 그전평균에비교해보면 약사배나 증가되여잇다

(사진은 오전으로값을내린 공중전화와 그표찰(상))

交換孃적이閑散

驛案內所"飮食店"取引店等等

街頭에서주는"스냅"

구리돈서푼-단삼전이던진 파문은 너무나 쌍쌍하며 섬각하다 전화도수제가실시되던첫날 서울거리에서 보고듯고 주은이야기는 이러하다

◇……내일부터는 제전화나빌려쓰는것이나 마찬가지로 한번에 삼전씩이니 며출등안될울이늘한복에다 거러버릴생각이지삼십일은 시내각국교환양(자동국은기게)이 마지막으로 대단밧벗다고

◇……종로에잇는 모설렁탕집에서는 십오전짜리 한그릇식이는때도 삼전의료금은너무가혹하다고 "電話料金引換券"이라는것을 벌서만들어가지고 전화주문에는 이인화권을 고객에게 주어 월말에가서 한장에일전오리식돌려주기로하엿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전화주문이 전에비하야 약절반이나 주렷스며 그대신 심부름군을 보내여하는주문이 훨신느럿다고하나 점심때가되면 이도수제로 경치는것은 교환양대신에 회사 상점 려관가정의심부름하는 남녀군이라는새현상이등장하엿다고

◇……빌려달라는 궁한소리에다 삼전을 보태느니보다 차라리오전이편하다고 멋업시밥버진것은 세월업서 낫잠자고잇든 시내각처에호터저잇는 마흔한개의 공중전화이다

◇……삼전의 위력을 실례로들면 경성역안내소에 물어오는전화가 대번에반이상주렷고 종로서형사실에 들어오던전화는 오후한시까지 평균 서른통이든것이 대번에 여섯통으로 주렷스며 시내각서에서 전화를 절약하는상은 오히려비장한정도이다

◇……전화를 제일만히쓰기로 유명한신문사 취리점등을 보면 더욱 취리점이현저하야 전에는 고객에게 전화를 자조거는것을 제일큰 써―비스로하든것이 오늘은 조처럼 큰갑의고저가아니면 알리지안키로한다고

◇……여기에하나 우수운광경은 전화를빌려쓰고도 그전만역이고 그냥나가다가 부르는바람에 깜짝놀라 주머니끈을푸는 건망증심한사람과 전화료금넛는 통에삼전을너코는 자동전화인가하야 번호도부르지안코 그냥서잇는 착각증(錯覺症)에걸린이가 하나둘보히는것이다

列車顚覆企圖한 犯人을猛查中

기보=이십구일오후열시오십분쯤에 부내한남정(漢南町)경원선선로에 철공소에서쓰는 만력(萬力)을 철사로매어노아 렬차의 전복을 꾀한사건에대하야 소관룡산서에서는 사건발생이래 전능력을 이사건범인체포에 부어오는중이나 일일까지 별효과를 보지못하엿스며 이날오전에는 룡산헌병분대서 문제의 만력을일시 빌려갓스며 도경찰부형사과에서 응원대가오는등 수사대는 점점늘어가며 더한층 맹렬한수사를 계속하고잇다한다

滿浦鐵道橋

來四日에起工式

지난 삼월에 일본, 만주(滿洲)량국사이에 조인(調印)한만포철도교(滿浦鐵道橋)의 가설 각서(架設覺書)에 따라서 조선철도만포선과 만주국철도 매즙선(梅輯線)과를련결할 만포 철도교의 기공식(起工式)은 오는 사일에 만포진에서 일만량국관계관민다수의 참렬로 성대히 거행하기로되엿다 철도국에서는 국장대리 관운전과장(管運轉課長)이출석하기로되엿다

손금고專門賊

동대문서에는 손금고 전문의 절도단이 검거되엿다 부내 방산정(芳山町)사번지의 이호천과 일번리창성(李昌成)(二二)과 전과 이범 김용안(金容安)(二○)외 한명은 지난사월할 새벽세시경에 림정(林町)모담배가게에 들어가 이십여원들어잇는 손금고를 훔처낸것을비롯하야 시내각처에서 절취한손금고만 이십여개에 금액이 천여원에달한다고한다

敗退한廢校派가 決議飜覆을策動

黃海道某氏代表現地서積極引繼運動

再危機當面한儆新校問題

【平壤支局電話】 조선에서 력사기픈 종교학교들을 모조리도마우에 올려노코 경영을계속하느냐? 손을떼느냐? 중대한혐의를거듭하든 선교사미순회총회에서는 드디여 대구의 계성(啓星)신명(信明)두학교와 경성의 경신(儆新)과 선천(宣川)의 신성(信聖)등 네학교로부터 경영을 인퇴하기로 결의하야 조선교육계에 커다란파문을던젓든바 금번미순회의 최종일인 금일일도 계속개회하야 인사문제이외에 명년의총회도 륙월이십삼일부터 평양서개최하기로결정하엿는데 이번에인퇴결의를하게된 경신학교에 대하야는 새로운문제가되는것이 금번의 인퇴결의라고하는것은 인퇴를하는동시 다른단체나 개인에게인계를 해주자는파가 오십륙표요 이것을반대하고 즉시로폐교를하자는파가 삼십표로서 이인계 반대파의의도는 전주(全州)와 광주(光州)외남장로파와가티 아무에게도 인계를하지안코 폐교를 해버리자는 강경파로 이파들은 금번네학교의 인퇴동시 인계하자는파의 결의에 대하야불만을품고 어대까지라도 폐교로 일관코자 이문제를 번복식히고저 책동중으로 일일오후에 이의안이 재론될우려가 잇다고한다

이와동시에 미리부터 경신학교 문제에대하야 관심을가지고 어떠한 락착을볼때는 즉시로인계를하고저 계획중이든 황해도 모재벌의 대표현정신학교리사최태영(崔泰永)씨는 금번에 평양까지 내려와 이문제의귀추를 감시하고잇든중 돌연히 문제가폐교파의 번복계획으로 악화가됨을보고 백방으로이문제가 번복되지안키를 운동중인바 아직도 폐교파의 기세는 강경하야 전도를 예측할수업는형편이라한다

啓星·信明兩校問題

宣敎會가引退하면 老會가引繼經營

契約에明記된"引退時管理權問題"

理事會는存續樂觀

【大邱】 긔보=조선미순회총회 석상에서 오십륙대삼십으로 대구 계성학교(啓星學校)와 신명학교(信明學校)등경영중지하기로 결의가잇섯다고는하나 이두학교만은 평양(平壤)경성(京城)전주(全州)와 학교경영의 성질이 달려서 동교리사회측은 폐교는 절대로 안된다고 락관하고잇다

비록 미순회총회에서 경영을 중지하기로 결의가 잇섯스나 대구만이 조속할 특수성을 가진 리유란것은 약십오년전에 경북로회(慶北老會) 경안노회(慶安老會)와 미국 장로회 선교회(米國長老會宣敎會)와의 삼개단체 공동경영을 하기로 계약이 체결된것으로 『미순회』가 인퇴할때는 쌍방계약에 의하야 인퇴하지안는 단체가 관리를인수할 권리가 잇게되엿는데 계약서의 요문을 보면 다음과갓다

=慶北·慶安·미순회間契約要文=

第九章 解除

第三十八條 本會憲章은 共同管理下에서 本校의 永久發展을 爲하야 制定한것이나 不得已한事情에 依하야 慶北、慶安兩老會나 米國長老會宣敎會가 此條約을 解除코저할時는 雙方의 贊成으로 即時解除함을得함 但一方이라도 抗議하면 一年前豫告가有한後에 解除함을得함

第三十九條 解除時에는 本學校의 投資金償還等事가 本校의根本目的에依하야 經營上必要한學校所屬物인 一切土地建物設備基本金利子等을 繼續管理할權이有함

第四十條 萬若主權者가 本學校經營을 辭退할時는 此憲章規約에依한 他團體가 必히上記한本校의目的에依하야 所屬物全部를管理할權이有함

第四十一條 何者이든지 어떤新團體와共同經營境過에는 모든所有者의 各共所有物使用에對한 確實한承認을 得한後에 經營함을得함

第四十二條 萬若此契約을 締結한三團體가本學校를 繼續經營키를 辭退할時는 慶北、慶安老會가 設施한 建物及 指定한 敷地를當時價대로 賣渡하고 其收入은 慶北、慶安老會와 米國長老會外國宣敎會兩者가 投資比例로 分配함

第四十三條 然이나 米國長老外國宣敎會代理인 朝鮮宣敎會가 慶北、慶安老會所有物의全部 又는 一部를 時價대로 買收할 權이 有함

第四十四條 此의 評價는 朝鮮長老會에서 選擇한 一人과 米國長老會外國宣敎會에서 選擇한 一人과 又此二人이 選擇한 一人、合三人이 此를 行함

市內四十八釀造所 十個所로合併統制

"酒販會社"의販賣統制에失敗한當局

이번에는製造方面에

경성의조선주(朝鮮酒)는 수년이래판매통제를단행하랴 하얏스나 여러가지곤난한사정으로 필경실패에도라가고마럿다 그리하야 이것을측면적으로 후원공작하든경성세무감독국에서는 미온적인 판매통제보다는 제조통제를 하면 판매통제는 자연실행된다하야 이것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야 일전에위선 경성부내 사십팔개양조업자에게 이미 그방침을내시하얏다

그내용의일단을들건대 현재조선주양조소는 각지방(도시를제한지방)은 년전대집약(大集約)에의하야 대개 리상적으로되여서 더손대일여지가업스나 경성을비롯한 각도시에는 아직도 그수효가 너무만허서 판매기타통제가 상당히곤난함으로 위선경성의사십팔개소를 약십개소로 주려가지고 이에대한 구체적통제를 단행한다는것이다 그런데 사십팔개소를 십개소로 주리는방법은 경성부내사십팔개양조소를 합병하야 한곳양조소의최소양조석수를 오천석이상으로하야 십개소로 집약통제한다는것이다 현재 경성조선주판매회사가 각양조업자와 체결한계약기간이 오는팔월말일임으로 이것을 오는동안부터 정석으로착수하야 팔월말일까지전부 단행하기로결정되엇다 그런데 제일차로 양조통제가 단행되는경성의 양조석수는 일년에 약십일만석으로 그매상고가 약삼백오십오만원이라한다

전조선각도시의 양조업을 통제하는전제로 위선경성의 양조소사십팔개소를 십개소로주린다함은 별항과갓거니와 이와가티양조소를주리면 거의전매적으로되기때문에 자연그품질이 나저질염려가잇다하야 유주당에 일대통동이라한다 그리하야 세무감독국에서는 벌서이것을 염려하야 양조소합병을 다만기구기타권리만가지고 합병케하지안코 상당한자금을 조성하야 내용을충실케할 방침이라한다

二萬七千圓에 눈이뒤집혀

土地仲介者携金逃走

경기도경찰부에서는 최근토지갑시 올라간름을타서 악성토지 『뿌로-커』가 날뛰고잇는것을 주목하야 그들의 엄정한내막을 예의탐사하고잇던중 때마침 시내효자정(孝子町)사는 김인홍(金仁洪)(三七)-假名-이라는 토지매매중개업자가 시내관철정(貫鐵町)사는 부호김모(金某)(四五)의 소유인 경성시내의 토지 약오천여평을 팔아준다고하야 그매매수속을 다마치고나서 토지갑이만칠천원을 산사람에게서 바다가지고 판사람에게 주지도안코 그대로어데인지 도망하여버린 사실을탐지하고 방금그사기횡령범인을체포하고저 맹렬활동중이다

水防團增設

明年度에三十六個團

해마다 여름이면 무서운홍수로 인하야 막대한 인명재산의 손해를 보는조선으로서는 홍수의 념려가 언제나떠나지안코 이창생을 위협하고잇는중에도 여름의 홍수기절을 압두고 홍수의 대책이 각지에서 고려되고잇다 현재각지의 수방단(水防團)은 어백오십개소에 약일만륙천명의 단원을가지고 잇스나 아직이것만으로는 부족하야 경무국에서는 기설수방단의 강화를도모하는일방에 새로히또 설치할계획을 세우고잇는데 이번에직할하천(直轄河川)에 대하야 각도를 합하야 삼십륙개단을 신설키로하고 이에대하야 삼만이천원의 예산으로 기구기계등일반설치비에 충당케하야 어여름홍수시기까지에는 설치를 완료할예정이다

"朝鮮印刷"職工 四百名盟罷斷行

賃金引上의從來失約이原因

會社側對策을鳩首協議中

부내봉래정(蓬萊町)사정목에잇는 조선인쇄주식회사(朝鮮印刷)직공약사백명은 일일정오를 기하야 일제히동맹파업을 단행하엿다

동회사직공일동은 일여전부터 모든물까가 올라서 생활의위협이 점점더하여감으로 회사측에 일할이상오금을 요구하엿든바 회사측에서도 승낙하고잇섯다 그런데 금일일까지 하등소식이 업슴으로 일일아침 직공대표가 회사간부측과 회견하여 일할이상을 요구하엿스나 회사측이 들어주지안음으로 전기와가티 일제히 파업을단행하고말엇다

회사측에서는 방금수뇌부회의를 열고 긴급대책을강구중인데 이문제가어떠케 해결될지 자못주목을 끌고잇다한다

소관서대문서에서는 고원(高原)고등계주임이 현장에나와서 사실을조사하는한편 조정에진력하고잇다한다

調査後善處 赤崎專務談

지난오월십륙일 일제히 사백명직공의임금을 일할식올렷습니다 그런데 금일정오 갑작히작업을정지하고 요구를하나 회사측에서도 물까가 올라감으로 적당한 조사를 하여가지고 우수한인물에게 한하야 승급을 식힐예정입니다 지금각계장(係長)에게 승급요구정도등을 조사식히엇습니다

鐵道길목의 事故絶滅策

遮斷機는"昇降式"

百餘個所에警標設置

철도국에서는 요지음에 철도길목에서 자동차, 기타의 사고가 자조 발생하기때문에 이것을방지하고저 조선내에 백여개소의 철도길목에 『경표(警標)』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방금 공사를 진행하고잇는데 종래의 철도길목의 차단기(遮斷機)는 종래에는 완목식(腕木式)이여서 차단할때에 불편하고 한번차단기에 부다치면 부러지게되므로 철도국보선과(保線課)에서 여러가지로 연구한결과 요지음에 함경선 본궁(本宮)과 흥남(興南)사이의 천기(天機)철도길목을 확장함에 따라 승강식(昇降式)차단기로 고첫는데 이로부터 어떤 종류의 차단기를 증설하기로되엿다 승강식차단기의 특징은 보기가쉬어서 안전하고 취급하기도 용이한것이라한다

(사진은 천기철도길목의 승강식차단기)

씨름大會

明夜 鍾路青年會서

九十名이登場할

中央基督教青年會主催의 第十回全朝鮮씨름大會는 明二日과三日의兩日間午後八時부터 鍾路青年會館後庭에서擧行할터인바 參加選手는地方으로 大邱, 元山, 信川, 北靑, 黃州, 平壤等地에서와 京城市內各中等, 專門學校에서總數九十名이出場하야 이날의熱戰을 豫想케한다

六大學野球

東京六大學野球聯盟戰은來九月四日부터 開幕하야十月二十四日까지의 八週日間에終了하기로決定되엿다

天氣豫報

概況 七五三粍의 低氣壓은 日本海中部에잇서 高氣壓은千島南海上에 七六二粍를가르치고 黃海와 東支那海도 氣壓이조금 놉고 支那內陸은氣壓이 얏다 北滿洲와 朝鮮西北은 개이고 東岸과 南朝鮮은 흐리고 釜山에는 小雨가잇다 日本內地는 一律로 흐리며中部地方은 곳에 따러 비가오고잇다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는개이고 明日은개엿다흐렷다하며 京城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二四度四
同 最低	一七度三
今朝最低	一六度六
今日正午	二四度

中風 高血壓 腦病

原因을究明한 血液의大掃除療法

血液이흐리지면 그림과가튼症狀이나타나서 最後에腦溢血、中風에걸이게됩니다。이原因은 酒煙草、梅毒、淋病、腎臟炎、糖尿病、便秘가原因이되야 血液이濁해저서흐리게되는까닭입니다。이것은一時的인腦病藥이나 血壓降下劑만으로는낫지안치만 濁한피를淨化하면 根治된다고하는結論에서 血液의大掃除療法이發明되엿습니다。蠅取粉의今津理學博士가苦心한結果 엇더한食物보다도 흐린血液을淨化하는 「リキシン」(イマヅ)을完成햇습니다。

本劑는 病의原因이되는 濁한피를淨化해서 毒을업샙니다。即血液의 大掃除를함으로 動脈硬化가낫고 血液의循環이잘되야 速히血壓이내리게됩니다 따라서上記의症狀도낫고 腦溢血中風이豫防됩니다。

中風은낫는다

오래된中風으로 藥效가업서苦生하는분도 リキシン으로 血液의大掃除를하면 허구름이나 半身不隨가 날마다눈에보이게 나어집니다。

リキシン은 藥店에有。新聞名記入해서大阪市大仁今津本舖에申込。血液大掃除療法을進呈함

イマヅ蠅取粉 イマヅ殺虫劑

福當り 第一回 當籤發表

파리는勿論
▼빈대·벼룩·진댁이
▼겜이·박휘·구덕이
▼머리人이·새면바리
▼犬猫·牛馬·家禽의 벼룩·이·진댁이·羽虫
문제업시全滅!
(全國荒物店藥店에잇슴)
特製南京虫用 따로잇슴

一等 額面廿圓 割引勸業債券 二枚宛

東京市大森區入新井	山岸海曉
東京市四谷區麴町	川島定吉
橫濱市中區三春台	相田ヤス子
名古屋市熱田玉の井	下出三郎
京都府宇治田原村	岡井三郎
和歌山市東釘貫町	平松芳子
大阪市住吉區殿辻町	橫山幸子
大阪市港區石田元町	寺元一郎
神戶市兵庫區野崎通	藤田久保子
高知市東九反田六一	中城潤江
下關市西細江町三一	平田和子
大分市西新町	天江ミチエ
台北市東門町一二三	頭滄濤
台南市高砂町二	鄭金海
京城府竹添町一	富木ツタ

二等 額面廿圓 割引勸業債券 一枚宛

(小樽)山田安次 (靑森)田澤聖路 (金澤)能澤秀二郎 (東京)柴野甫彼 會橋光太郎 (埼玉)折原トキ子 藤田彦次郎 (靜岡)竹澤文子 (名古屋)一柳武男 (岐阜)毛利國雄 (近江)林卯三郎 (三重)大川翔子 (堺)入交了妙子 (京都)下間勇次郎 若林タネ (大阪)山本政次郎 永井寨三 (兵庫)山本ミツ子 (姬路)大畑定夫 (廣島)蛸澤周子 (德島)高畠寶 (松江)安部好子 (福岡)宮野太七 (鹿兒島)乙須良夫 (台灣)岩元保 曾萬益 張煥麟 (朝鮮)村本良子 渡邊新藏 日永田吉晴 ―以上敬稱略―

三等 仁丹体溫計 七百五十名
四等 イマヅ防虫香 三千名
五等 みすやぬひ針 一万名

三四五等은 賞品到着할것이오니 그리아십시요

第二回 福當り懸賞 引續き募集中

庭木―果樹―野菜
훌륭한 害虫驅除劑

イマヅ殺虫劑는 普通한除蟲菊油를主成分으로하기때문에 殺虫力이 非常히强하야 普通害虫이면 千倍로稀薄한 液으로 問題업시 全滅합니다。도한번쓰면 별레가 시려하는냄새가 오래書에남아잇슴으로 별레가다른데서 移動해오지안습니다。그러고 作物을刺戟해서 發育을旺盛히하고 收穫을增加식힙니다。以上의三大效果는本劑가 世界各國의專賣特許를어든據서 今至 殺虫劑에全然볼수업는特長입니다。

『殺虫驅除에對하야』冊子、新聞名記入申込하시면無代進呈

今津化學研究所 大阪市·大仁本町

H. 70

若劇

1 東海道は日本晴 11·40 2·55 6·35
2 東日大每ニュース 1·00 4·15 8·15
3 港の掠奪者 1·10 4·25 8·25
(1)P.C.L.作藤原釜足·岸井明·竹久千惠子·小林重四郎主演
(2)佛パテ·ナタン作ベルヴアル·アレクサンドル·リュコオ·レイモン·エイモス主演
二十九日ヨリ 晝夜 三回 大人·五○ 學生小人·三○

中央館 永樂町 本二○一四
每日晝夜 三回興行 第一回 一、 第二回 三、 第三回 七、
肉彈鐵壁突破 ハヤフサヒデト·琴美路子主演
O·K·R映畫社超特作日本版 肉彈鬼中隊 ビクターマクラグレン主演
變化二人曼陀羅 江川宇禮雄·二九久野あかね主演

優美館 黃金町 電光三九五
二十九日ヨリ七月二日マデ 四日間 階下席 十錢均一
ハリキリボーイ 古川綠波主演 岸井明 三益愛子 藤原釜足 能勢妙子 東寶綠波一座總出演
P.C.L超特作 原作古川綠波 監督大谷俊夫

團成社
映畫創始以來初有의壯烈篇 當七月一日부터超特別大封切
와-너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進め龍騎兵
無敵艦隊
吉田御殿

第一劇場 電話光化門 一七五五番
東日大每ニュース多數上映
七月二日早朝三日間大公開 滿天下待望의新鮮豪華番組
虎鮫島脫獄
やらずの雨

白百合よりも
보담도
美しい若肌に…
어여뿐살결로
お肌の榮養に
장마철의더위에 땀과脂肪이 過剩하게分泌되고 살결의生活力이衰하야저서 皮膚는 弛緩이되고 잔주름이늘고 여드름、부름은 때를차자얼골에퍼집니다 잇지마시고 레-도구레-무로、朝夕、손질을하서야지오 優秀한有効成分은 살결에곳속아드러가서榮養이되며 生活力을 旺盛하게하고잔주름、부름가른살결의 障碍가되는것을一掃하야 艶하고 彈力이잇는부드러운살결을 만듬니다。
お化粧下に
땀이만히흘러 化粧이 밀리기잘하는 여름철은 特히白粉下로서 레-도구레-무를 쓰시는것이 어여뿐살결을맨들고 오래지탕하게되는 秘訣입니다 레-도구레-무는 살결에適度히爽快한 潤澤을가게하며 粉白粉을살결에얼룩이지지안케 살작附着식힘으로 흘러나리는땀이나 脂肪에도決코 밀리지안는 어여뿐化粧이 하로終日生生하도록 지탱하게됩니다
벼끼를防止에!
녀름에는더 조흔健康色을 가저야합니다! 시꺼머케된 벼끼를거은는애써 길른살결의 魅力도 업서지고맙니다
레-도구레-무에는 優秀한 벼끼를防止하는有効成分이 含有되여습으로 直射하는 强烈한紫外線을 遮斷하고 黑色素가發生치안케解消식히여서 完全히 벼끼를을 막읍니다바다로 山으로…가시는대에 레-도구레-무는 빼노치못할必需品입니다
따이야몬드 뉴-쓰
얼골은 자조 面刀를 잘하시는분이 크림이 잘吸收됨으로 고흔 살결效果가잇습니다
レートクレーム
魅力의살결
001367

家庭

야위나 뚱뚱하나 땀이 만흔것은 병

남보매도 숭하고 자기도 괴로운일 간단히 치료하는 방법

여름 무더운 때 누군들땀을 흘리지 안켓습니까만땀도 사람을 딸아서 다 각각 흘리는 정도가 틀립니다。다른 사람들은 촉촉하게 저질 정도로 끄치는데도 어떤 분은 폭포처럼 떨어저서 어떠케 씻처낼 겨를도 업게 됩니다。그런데 그와가튼 구별은건강의 정도、병의 유무、음식물등으로 인하야 생기는 것으로써 흔히 뚱뚱한 사람이 만히 흘리다고 생각하는것은 잘못입니다。뚱뚱한 분이 땀으로 해서 파리한 분보담 고통을 더밧는 것은 물론도 결코 파리하다고 해서 뚱뚱한 분보담 반듯이 땀을 적게흘리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

우리들의 살ㅅ가죽에는 적고 큰 땀ㅅ줄(汗腺)이허터저잇서서 그로부터 늘 뇨소(尿素)、염분(鹽分)기타의 못쓰는 물건을 내보내고잇습니다。땀ㅅ줄이 업는데는 전신에서 겨우 발ㅅ바닥과 손ㅅ바닥의 일부분 뿐이요 그외에는 어디나 업는데가 업습니다。그러케 땀을 흘림으로써 신장(腎臟)의 배설작용(排泄作用) 즉 오줌누는 작용을 보조하는동시에 몸의 온기(溫氣)를 조절(調節)하고 잇습니다。그러니까 땀을 적당히 흘리는 것을 건강상태라고 볼것이요 그 반면으로 유난스럽게 만커나 적은 것은 일종의 병으로 치지 안할수가 업습니다。

×

여름이나 또는 가쁘게 일을 한뒤 왜 땀이 만흔고 하면 거기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잇습니다。첫재 땀을 충분히 흘리어서 바깟 온도와 체온(體溫)을 잘 조절하려는 까닭이요 둘재 혈관(血管)이 커저서 살ㅅ가죽의 기능(機能)이 올라가서 땀이 만허지는 까닭이요 셋재 더운 때는 신장으로부터 나오는 오줌이 적어지면서 그반대로 살ㅅ가죽에서 나오는 땀이 만허지는 까닭입니다。그 외에 겨울과 여름은 공기의 습도(濕度)조차 다름니다。겨울에는 땀이 바로 날러 가지만은 여름에는 그러치를 못하야 방울저 떨어지는 것입니다。

×

그런데 신장이 나쁘거나 변비(便秘)가 잇거나 또는 신경쇠약증(神經衰弱症)과 히스테리가 잇거나 한사람은 특별히 땀이만습니다。위선 신경쇠약증의 환자가 도한(盜汗)이 만흔까닭으로 결핵병(結核病)과 혼동되는 수도 업지 안습니다。물론 체질에 따라서도 차이가업는것은 아니나 그차이는그다지 대단치안코 또 살이 찌면 땀ㅅ줄도 더확장되지 안는것은 아니나 그역시대단치안습니다。그러고 보죽 땀이 남보담 만히 흐른다는것은 그들에 어떠한 병이잇서서 그런것이라고 보는것이 대체로 맛는말입니다。

×

그렇이 아니라 땀이 만허노흐면 몹시 피곤하고또 기분이 조치안습니다。어떠케든지해서 땀을 적게해야만할것입니다。

(1) 물을 만히자시지 말어야할것

(2) 찬것을 되도록 조심하실것

(3) 목욕을 자조해서 몸을깨끗이 할것

(4) 냉수마찰(冷水摩擦)과 해수욕(海水浴)도 조흡니다。

땀을 끄치게 하는약으로 아지보후시가튼 것이 잇습니다만은 보통때 쓸것으못됩니다。

나드리옷에 흙이튀엇슬때

흙이 옷에튀엇슬경우에 가된것을비비면 흙물이속으로 배여드러버립니다。그러니까 그대로 말려 충분히 마른다음에 안쪽(거죽흙묻은자리밑으)을 부벼흙을떤뒤에 『비로-도』나 융가튼 흔겁으로 살금살금닥습니다。

만일 기피배여서 좀처럼안떠러지거든 무명옷가트면 이쑤시개를 물우처 이것으로 튀기드시해서 씻슨뒤에 다시물뿔뽑고 히헌겁으로 눌른다음 인두질을해서말립니다。

그래도 안빼질때는 조산(醋酸 소위왜초라고하는것)을 아주엷게 물에타가지고 그물을찍어서 닥근뒤에 다시맑은물로 훔칩니다 옷에흰흙가운데는 『알카리』기운이잇기때문에 흙이마르는동안에 벌서 옷에이기운이배여 얼룩이 가지고마니까 흙이튀거든 곳집으로 도라와서 아까말슴한 조산을 물에탄것을 찍어바르두면 『알카리』기운이 중화가되여 얼룩이가 안지게됩니다。

함께못먹는다는 상극되는음식

과학적으로보아일리가잇서

옛날부터 비각되는 음식이니、상극되는 음식이니해서 두가지이상의 음식을 섞거먹으면 중독이되느니 죽느니하는말이 전해옵니다 이를테면 게하고꿀하고 먹으면중독이된다 눈하고설탕을 갓게먹으면 죽는다……하는말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본다면 허무맹랑한소리이지만 그러나 터럭근거잇는것도 잇습니다。즉소화잘안되는음식、상하기쉬운음식들을 섞거먹으면 더욱탈나기쉬우니까요 어쨋건 음식에중독되기쉬운 특별한체질을 가진사람이나 위장이약한사람들을위해서 건강한사람들을위해서라도 그런치안타고 우읍필요까지는 업을줄압니다。

○게하고빙수—게는 꾀상하기쉽고 따라서 중독되기쉬운것인데 거기에다가 빙수까지먹게되니 탈나기쉬운것은 정한리치입니다。아주성한게를먹고도 두드러기가나고중독이되고하는체질의 사람이잇스니더말할것업습니다。

게와감—게는 지금말한바와가티 자미업는것인데 감은 뒤를조하게맨드는것이니 함께먹어 조흘거업습니다。

○메물국수와우렁이—메물에는 섬유가 만흔데다가 여름에위장약한때만히 먹으면 체여시설사시롭니다 그런데 우렁이(田螺)는 소화잘안되기로 유명하니까 령합하게업습니다。

복숭아와청어알—복숭아는 섬유(纖維)가만혼과실이라 아이들이 먹고흔히설사합니다 청어알역시 것껍데기가 단단한것이라 소화잘안되니 가리먹으면 위장이 상하기쉽지요

○비파와관—비팟、소위양살구라는것은 어이들이먹고 이질대장가타루에 걸리기쉬운자미업는 실과인데 땅은것재질이 소화안되며 떼구라틀어보지 오래되면은 대단히위험한것입니다

○옥수수와조개—옥수수는 소화잘안되어 아이들이먹으면 흔히뒤로 그대로 나옵니다 조개역시 디처노으면 살이 단단해저서 소화가잘안되고 생조개오래된것은 중독되며 함께먹어조치안흔것이며

국수와수박—국수는 먼저도 말할것도업거니와 수박은 수분이만하 냉해서 설사하기쉬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가잇습니다

콩을삶을때에는 염수에당것다가

콩이나 팟치나 흙뻬무르도록 폭삶자면 어떠케하겟습니까? 콩자반볶글때 소면가튼데에 콩소를 해너엇슬때 늣기게되는문제입니다。

그대로 물에당거 삶으면 무르기야하지만 여간더딘것이 아닙니다。그러니까 삶기전에 잘씨서서 소금물(마음을보아 약간짭짤만큼한물)에 반나절 당거두엇다가 건저서 남비에 너코 약한불에 오래오래 삶습니다。훨신 부드럽게 무른뒤에사탕 소금 간장이순서로간을마치고 불을옮기거든 두껑을더퍼둔채로잡시 분가량 그대로 뜸이들게합니다 이때에콩이 아직똥똥하기전에 간장이나 소금을너흐면 결코콩이 무러지지안흐니주의하십시요

가정의학

가삼결리고기침나

문 저는 금년이십이세의 기혼남자입니다。약십여일전부터가슴이 결리고 숨이차며 기침이납니다、밤에는기침으로해서 잠을 못잡니다 어떤사람이 십오세가량의 소년의 오줌을 먹으면 즉효가 잇다하오니 사실일른지요 자세히하교하여주십시오 (開城우리生)

답 당신증세로보면 륵막염(肋膜炎)에걸린것갓습니다。십오세소년의 소변이약이된다고 뎌구나 즉효가잇단말을 들엇다하오나 그것은 근거가업슬뿐아니라 또한아모효험도 업슬거시입니다 소변에 함유한염분(鹽分)으로써 다소간이뇨(利尿)가된다고 생각하더라도 사용할가치가 업습니다。그보다 더운물로 가삼을습포(濕布)하게하고 안정하심이 소변을 마시는것보담도 나흘거심니다。한번병원에 진찰하시여 지도를 바듬이 오래끌지안코 나흘것갓소이다。 (聖母病院長 朴秉來)

우리차지

경치

솔밧테서 나는 바람
소리는 소나비처럼 쏴
아 쏴아 한다。
강물은 저러케 만어
도 소리업시 흐르네。
돌도 낫잠을 자는지
조용하다。
들엇니、저뻐국이소리。

(공주사람 홍병문)

長篇小說 찔레꽃 【71】

金末峰 作 金熊超 畫

꽃은피엿건만(二)

지내가는 소나비가치 갑작이 시작하엿든비가 하날은 점점컴컴하게호려가고 간간히 리성소래까지 섯기여 비는 줄기차게 쏘다지는품이 좀체로 끄칠상십지는안타

경애는 괘종시게를 드려다보니 어언간 네시반! 어느새이러케 시간이갓슬가

『그럼 래일은 기다리겟습니다』

또한번나지고 경애는 자리에서 이러서는것이다

『우중에 어떠케가시려고……잡간기다려 어지간히 비가끄치거든 도라가시조』

하고 민수는 경애에게 인사말을 아니할수 업는것이다 인사말이라기보나도 사실자기를 차저왓든 여자손님을 장대가티 퍼붓는비속으로 그냥내보낼수는 도저히업는노릇이다 더욱이 우비도가지지안흔 획구두에 엷은보이르로 만든 방문복을입은 처녀경애를——

민수는 정순을 사랑한다 정순을사랑하기때문에 정순의 연배에잇는 젊은여자에게대해서도 그는 어느정도까지 리해와동정을 가질수잇는 자신을 발견하는것이다

한편 교만하고 랭정한경애를 미워하면서도 그는 미운경애를 비속으로 내쫏지못하는것은 경애라는 여자가 자기의 사랑하는정순이라는처녀와 가튼 종족(種族)에속하고 잇는탓이 아닐가

『글세요 그랫스면조켓습니다만 비가언제 끄치게될지도몰르니깐요……』

『웨요 인제조금만지나면 끄칠겝니다 정 가시겟다면 제가 가서 택시를불러오조』

하고 몸을이르켜보엿다

『안에요 그러실것업서요 그럼 좀더기다려보지요』

하고 경애는마츰으로 오날자기가 정작민수에게말하려고 결심하고왓든화제를생각해보는것이다 래일민수를 자기집으로오라고 한것도 실상이속 지금자기가맘속에서리고잇는 그말을할작정이아니엇든가 한참동안두사람은 또다시잠잠하여젓다 경애는 딱딱 손구락마디를꺽끈다가

『민수씨!』

하고 가늘게불럿다 민수는대답대신 고개를들어 경애를바라보앗다

『저ㅡ이런말은 어떠케생각하면 지내간일을가지고 도로혀당신의만을 상해드리는 것이될지 몰르겟습니다만……용서하시고 드르주실테야요?』

『네ㅡ놋지요무슨말슴인데요?』

경애는 호르르 한숨을쉬고

『워정대번에 밀양서제게편지하시지안허셋세요?……그편지를 밧고 저도첨에는 무척애를썻답니다 그래서 연기를식히자면 먼저살사람을구해야되겟다 생각을하고 위선 제집과친한 윤영환씨에게 사겟느냐고 물어보앗지요……그랫더니 그이가 첫말에사겟다고 그리두군요 그래선 너무기뻐서 아버지께 즉시전화로 집에까지드러오시라고엿습고 경매연기에 대하여 담판을하려고 돌지안엇습듸가?……그랫든것이…… 참정말 이것은 민수씨라기보다도 제자신의불행이엿지요 정말어떠야못한 착각(錯覺)에못돌려서요……말이좀까나뿝습니다만……그래서저는 그만그사건에대해서 흥미를노처버리고 말엇지요 그래그뒤영 아버지께도 교섭도하지안코잇섯더니 윤영환씨는 제부탁대로 그토지를샀다나바요 사용(舍音)이 경락을해다구 그리두군요 참한땅을 사게해줘서 고맙다구 윤씨에게 인사만밧고……참정말 저는 민수씨에게는 너무도죄를지엇서요……그죄를빗는라구 말이미처서 날뛰엿든가 실습니다…그런데 그말을 붓잡어준이가당신이라는것은……』

경애의말소리는 끈허젓다 눈을 떠러트리고 안젓든 민수가놀라서

『경애씨!』

하고 밥음 민수의책상위에 쓰러진채 가늘게 떨고잇는 경애의 어깨를 물끄럼히바라보앗다

『착각이라고 말슴을 하섯는데 그착각이란게 대체 무엇이엿든가요 네 경애씨!』

하고 민수는 한거름 경애의것흐로 닥어안젓다 경애는 눈물이 흐르는자긔가 이상스러워젓다 요며해동안 눈물이라고는 아조 말라버린듯한 자긔동공(瞳孔)에서 뜨거운눈물이 줄기지어 흘른다니! 그는 좀체로 울지안튼자긔가 더욱이 민수아페서 눈물을 흘리고잇는 자긔추태(醜態)가 부끄러워젓다 그는도라안저 가만히 손수건으로 얼굴을 씨첫다

『경애씨! 모처럼 윤영환씨에게 사라고까지 권해노시고 웨 무엇때문에 흥미를 노치섯든가요 네?』

민수는 호기심과 의심이 한데 섯기여 일부러라도 속히드음말이 듯고시픈것이다、

『저ㅡ어 착각이라게 그럿초머 아조우습고 야릇하고……』

『괜찬하요 무슨말슴이라도 저는 리해할수가잇스니깐요』

『그럼 웃지마서요네?』

하고 경애는 개통한령우에 근심스러운미소를띠고 민수를도라보앗다 바로그때이다

지금막밧게서 도라오는듯한 근호가 락수물에 어깨와등어리를 적시면서 철하미트로 뛰어들엇다

『무슨비가 그러케온담』

근호는 민수방아프로 껑충뛰어오더니

『리군! 저ㅡ돈일원업겟소?』

하고 방안으로 고개를쑥드리밀다가 여자손님이잇는것을보자 뭉칫 뒤로물러섯다 그는 민수를 향하야 한편눈으로 슬적윙크를 하고는

『택시를잡아타고왓더니……아춤예전차에서 차표를주고 지금 자동차삭을 치룰라고보니깐 하1참 맹랑하될도잇다니까』

민수는 돈일원을끄내 근호의 손바닥에 노하주엇다

『그럼저 지금 저이가타고왓든 자동차로 도라갈가봐요』

하고 경애가 발딱 자리에서이러섯다

『그리고 이야기의계속은 래일두시로 미루겟습니다호호』

우스며 경애는신을신고 뜰로내려섯다 민수는 대문밖까지 따러나가 경애가택시에서 손을흔어보일때까지 우두머니섯다가드러왓다

效果が早くて著しいホルモン化粧水

가속하고 顯著한호루몬

お顔が若返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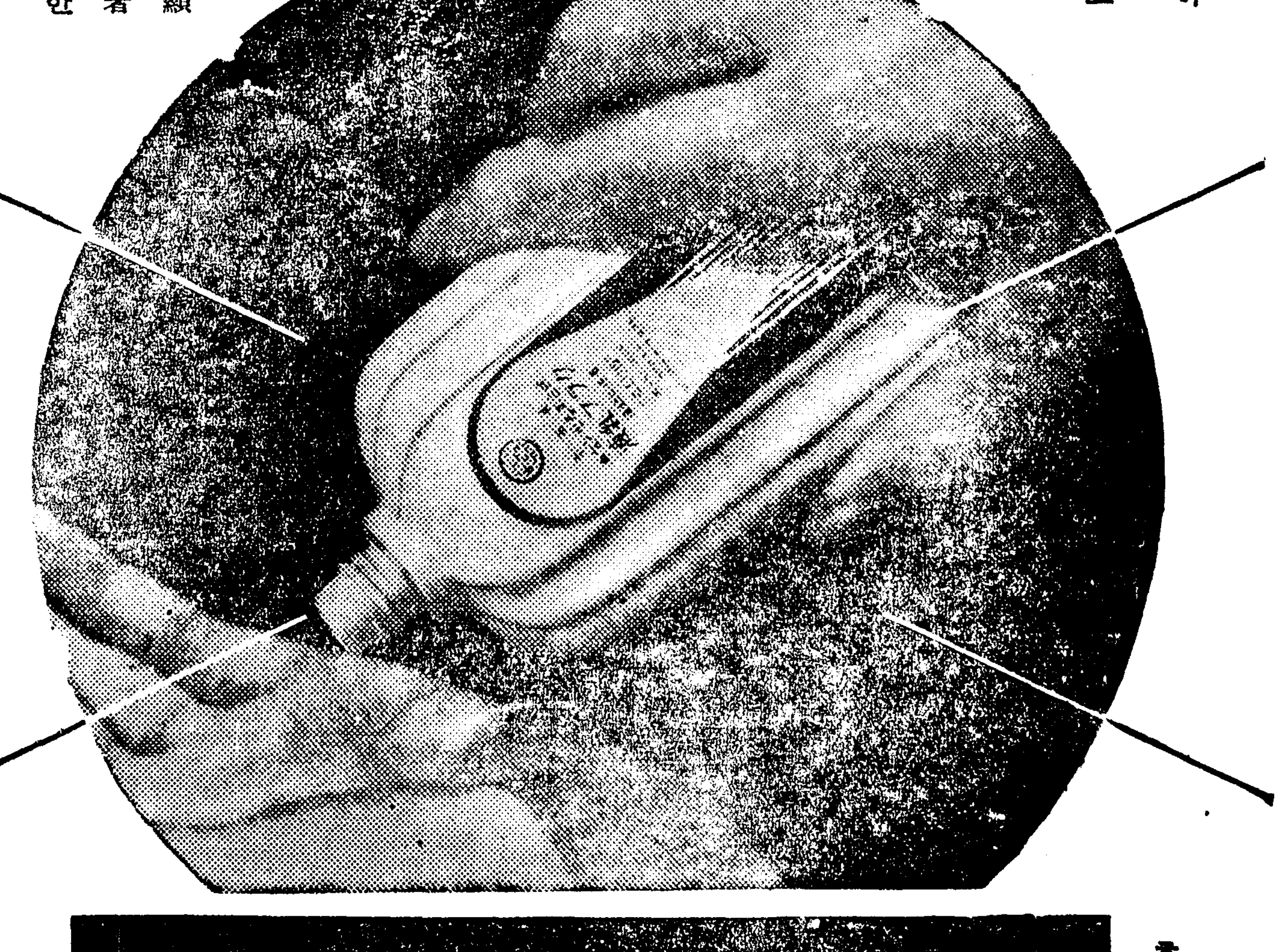
百合花의花瓣과가티 젊은살결이된다……고구라부乳液의效果는 大評判인데 그것도 그럴것이 原料가훌륭하까닭입니다 效果가 强한綜合호루몬과 植物아루몬도 作用이잇는까닭이니……就寢前이나 入浴後에 一二三滴을얼굴에문질러주십시요! 눈에띄여새갈이희어여뿌고젊은살결이됩니다 同時에기름이흐르는얼굴에 기름이업서지고 여드름과주근깨도엄새버립니다

手か美しくなる

當身의 손은 깨끗하십닛가? 날마다 廚房서 家事나 掃除를하는동안에 거칠거하게거칠지는안엇습닛가? 어쩌보드럽지안코 老人의손과가티보이지안습닛가? 그러면구라부 乳液이잇기만하면安心입니다 웨그러나하면 호루몬과植物아루몬도의效果는이러케 偉大한까닭입니다 바르시고나면 얼마아니가서 아주몰나볼만콤어여뿌고 맵끈한손이됨으로구라부 乳液이萬能化粧水로서 어떠한家庭에서든지 愛好하시게되는것도當然한일이아닙닛가

お化粧下に一番

엇던化粧도 구라부乳液에서 出發한다! 이것이업스면 化粧이 안된다고 十人이면 十人의 女性이 다같이 말삼하십니다 구라부乳液으로 子先살을 닥가내고 다음에 구라부美身크림을 발으고 그우에 구라부刷白粉을 살발으면健康化粧은 매만지는 美가 칭신다톰뿐아니라 어떠한때도한날이라도 終日콤팍트가 不必要할만치 오래지탱할수잇습니다 또、구라부衿白粉이나 煉白粉을 타는물로도 第一입니다。白粉이 잘퍼질뿐아니라 빗나는듯이 어여쁜調劑가 나게합니다



ひげ剃り後に

깨끗이 면도를하고、반다시 구라부乳液을 二三滴발나두면……그것은 決코 호사가안입니다。皮膚의衛生上絕對必要합니다。殺菌力이 强함으로 칼독을防止함은勿論 植物아루몬드의 榮養作用으로 산뜻하고 매끈매끈한 살결이됩니다。爽快한 香氣라던지 快適한 使用感이든지 면도後는 斷然 구라부乳液에 限합니다! 여드름과 죽은깨에도 훌륭한效果가 잇습니다! 라고都會에서나 農村에서나 近代靑年들 사어에 大端評判이좃습니다

六〇セ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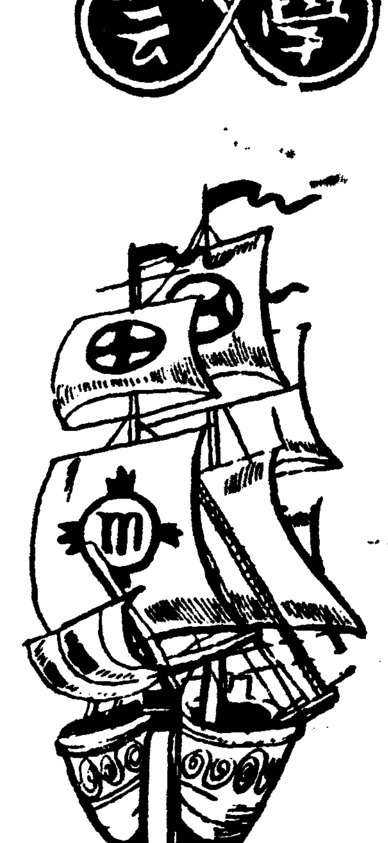
クラブ乳液

구라부

호루몬化粧水

B-370

文學



文學의大衆化와言語問題
—論議의現實的基盤을닥기爲하야—

① 韓 植

지금 우리文壇에서는 휴-마니즘의問題가 相當히論議되고잇다. 여러批評家들은 쩌-나리즘의波瀾에따라 누구든지 이問題에對하야 여러번評論의붓을 휘둘으면서 이에對하야 發言치안으면

一批一 評家의 갓(冠)이업는상싶흔 모양을하고잇다. 마티 이問題 以外에는 우리批評家들이 取扱할것이업는 것가티. 그리하야 그들은 그問題의問題에 每日과가티 排個하면서 그結果로相當히 紙面을繁昌시키면서도 그러나恒常 한갈가튼 原則과抽象論에 헤매이고잇는 現象을보는것이나 그리하야 마츰내 휴-마니즘의存論이라는말을듯는 지경에까지 이르럿스니 이것은 果然어떠한理由일가.

勿論나도 휴-마니즘의 本義를 解說하며 그中에따른一般論을 展開함을否定하거나 無視하고저함은아니다 오히려 그와反對로 또한여러批評家들이 熱心히 討論의 꼿을피운것의 結實을 바라기때문에 그리하야 이問題가 이때까지의 여러가지의行方不明한 諸問題처럼되기를願하지안흠으로써 우리批評家들의態度가 다만 一般論에 右往左往하는것에 不滿을 가지지안이치못하겟다고하는것이다. 特殊性을 抽象못하는것과가티 一般論을 具體化못하는態度는 現時의 우리들의 文化

一文一 學戰線에 잇는사람들이 가지고 잇는 傾向이라하겟다. 도한그러한테다 우리批評家들은 서로敎育함으로써 文學 文化의諸問題를 究明하는것이아니라 단지 한問題에對하야 自說의 正當性을主張하고 合理化하는데에 忽忙하며 누구보다도 먼저 結論에到達하자는 印象을 주는것은 어쩐일까. 그리하여서는 이때까지의 다른問題와가튼 運命 때가오면 忘却의 谷中에 파뭇처가지아니리라고 누구가 斷言할수가 잇슬가. 때의 흐름에 따라서 現象에對한 敏感性을 뵈우는 것은못다하겟스나 그대신에 問題를執拗히分析하며 統化하며 그것을具體的으로 血肉化하지못하는것은 아마우리文人들의 한文學分野에잇서서의 모토-와스로-간을가지지못한때문이며 우리文化의 中心的이데올로기-가 업는때문이라고 생각할수가잇스니 世上의 混沌을따라 事物의相互關係와展望을 파할수잇는 所謂「토오차카」를 喪失한때이라고말할수가잇지안흔가한다. 그리하여서 만흔

一論一 理에도不拘하고 우히 生活이되지못할수업고, 그進步를妨害하는하야, 그다지利害를 주지못하는 만흔現實에對한見解, 言語觀, 個人的反感등의 雜然가混合되여잇는것을보게된다. 今日 휴-마니즘이 全世界的으로 부르짓게되는理由는 人類의 眞正한生活이 脅迫당하고잇는데에 起因되고잇는것은더 말할것업는일이다. 그리하야 人類의文化의危機가 絶叫되며文化의擁護 人間性의尊嚴등이絶叫되고잇는것이다. 그런대 여기서注意하지안흐면안될것은 그러한今日의 一般情勢에는홀로잇거니와 知性의危機 文化의後退 이와가튼것들이 하등(境)이 가되여서 한꺼번에襲來한다든가 또는 어느때라와가티 파시즘의 政治的 오른가니제이순을 明白히나타내다. 우리들에게도 닥처온다는것이안와라는것이다. 우리들의 現實生活의態度의對立가 한쪽가에서 言論, 演劇, 敎育, 言語등의 眞實한인것의 한가지 두가지에 그의表現을 나타내고잇다는것이다 그러케

一重一 要치안흔 瑣末事가 운데에 차차로 或은晴晴卷에나타나오는것을 알어야할것이다 그리하야우리의 그에對한擁護와 그에對抗하는 意識로써다만 漠然하게文化와危機 知性의敗北 휴마니즘의發展등의 一般論의되푸리와 歷史論의莊嚴으로써 無限한면의 興奮을베푸는것은 하나의 센티멘타리즘이나 氣分에지나지못한다는것이다 그와反對로 그의 正當한擁護와 探求는 모름지기 一見하여서는 仔細하게 분간못하리만한 日常生活의諸面에서 그本質을看破하며 닥처오는그影響에서 事物을 그의正當한位置에서바라보며 歪曲당한實體的 諸相을 샅샅치들처보는것以外에서는 到底히今日의휴-마니즘의開拓을 차저낼수가업는것을알어야할것이다. 내가 여기서 言語問題, 우리말에對한 再認識을 提議하는것도 그러한 意圖에지나지안는것이다. 오늘날 우리文壇은 어느程度로 出版界가相當히만흔 文學作品의發行을 遂行하고잇슴을따라 오래동안의 讀者의渴求에對答하여옴을따라서 旺盛하고잇는것은 大段히기뿐일 이라고하겟다. 長篇小說集 短篇純粹, 女流, 新人小說集, 詩集各種의 單行本들이

一漸一 次로出版되려하는것은 우리文學人諸者의 한갈가티待望하야 마지안는것 이다. 그리하야文學의普及化는漸次로現實的日程에올을것이며 多小限定되며 消極的이라고하드래도 文學의大衆化가 實際的으로 遂行되는 一步를것게되는것은단지 出版者의營業으로만 생각지못할 우리의關心을흡히하며 注目을要하는것이다 第一로讀者民衆의需用에對한 供給이며 또우리들의文學을 그들에게 普及식히는 現在에잇어서의 唯一한機會인만큼 그에對한우리들의 생각이等閑하여서는 안될것이다

漢詩募集
題 芳草
押 生
(限七月二十日)

松江歌辭板本考 ⑥
金□鉉

古 書 解

그러나 李選本에버 亦是分明히 『말디자』로 되어잇고 달은 글字로는볼수업게 되어잇다. 그러고보면 果然 어느것이 올흔것이라고 보아야할까 두版의 이 모두 誤刻이 되엇는것이고 原當의 誤字도 이에 當한 誤謬이라고만 보아버려야 할것인가 이두板本에서 使用된誤文을 글字그대로 미더버리기는 大膽히 어려운것이나 그러나 만일 이것이참으로 月의 意를가진 달이라고하면 그것은 『달』이아니고 『돌』이어야 할것인가 한다 이點이 퍽도疑問를 품게 하는點이 잇으니 이책에도 月의意를 表示한글

각시님달이야크니와 구룬비나 되소서 내우은버혀내여 며물흘링 고저

로 아래와 가튼것이 잇다 모도 좀더 文意와 文獻의 參考가 必要한것일뜻하다。 도關東別曲 맨끗 바루 星州本卷上第十張 第八行의

기픠를보랴거니ㅁ인붕엇디알리

의다음에 李選本은 三句節며 加入하야 끗마첫나 그러나 李選本도 赤是 星州本과 가를뿐이오 달은것이 업시

明月이千山萬落에 아니비쵠대업다

라고 되어잇다. 以上의 三者는좀 未詳한듯한것이 잇기로 여기에 드러노흔데不過하다

우에 말한것으로 내가 어느程度이 星州本과는 全然 다른 쳐인을 알수잇다 그러면 이 李選本은 果然 어느것일까 關西本도 아니고 勿論 北關本은 아닌것이니 그러타고 黃州本도 아닌것이다 그러면 義城本이라고 보면 어떨까 우에서도말한바 잇섯거니와 星州本에 부른版에 依하야 첫재 短歌가 만히 업다는點과 둘재 義城이란地名이 李選이그後를 쓴 東城과 가티 慶尙道라는 近接地인것이點이 이李選本을 義城本인가고 의심하게 하는것이 잇다 그러나첫재 短歌中 李選本에는 星州本보다 三首가 더 다른것이 잇으니 어찌하야 義城本이라고하면 星州本에 다 記入할것이어늘 이三首를 빼엇슬가 하는 疑問가 잇고 둘재 李選이 東城에서 그後를썻 言뿐으로 그刊行된地域을 推入치안엇스니 이것만으로 近接地인 利顏이 滿州한것이다 그럼면 아직 아모리 보아도이를의 板에서는 이책을 찾기 어렵나 그러므로나는 끗까지 李選本이라고 부르[illegible]안볼수업나 同時에 이책이 [illegible]러면 무슨板인가를밝혀주는이[illegible]기를 바라서 마지안는다

끗으로 星州本에 빠진 三首를 列記하므로써 끗막는다

남진죽고우는눈물두저지누리書며젓마시쪼나모고주식은보재거든더높아어너안호로겨집뇌라흥는다

풍파에 일리던비어드려 가닷말고주롤 머흘거든처음의날을엇디허술훙비두신분네눈 모다조심옹소서

더기섯는더소나모 길가의설올엇디저근덧드리혀 더굴형의서고라자ᄾ띄고도채멘분네는 다디그려훙다

以上

고달픈旅路
李 [illegible]

비랄도 잠자는 포양한 하늘밋
蒼茫, 荒野를 가로막는 아무것도업고
曠野에 드나는 금파, 은파의
귀人전놈 간즈르는 다조로운 속삭임뿐

寂寞에 지친 砂漠 靑年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외로운 나그네마음이 갈매기를 부르나
허공에ㄴ 한울기 빗기구름도 볼수업고
손끄테 숨어드느니 흘모래의 싸-늘한 촉감이여

BO—
머-ㄴ 水平線· 까마드키
鄕愁를 울며 울며 어드메로 가는배ㄴ고
아 언제나 꿋나리 낫선浦口에서 浦口의
구슬피 서리는 기나긴旅情에 내마음도 우는고나 흑
여우는고나

—1937·6·於三湖—

그……림……자

女流作家의地位
—特히作家以前에對하야—
(三) 任淳得

인제는 그素朴한공치나마 산산히 부서지고말은지 몃해가지낫다. 무엇인가가 그공치의 解體를 願하엿슬뿐아니라 그공치를 構成한要素들의 社會的生理 그것이 離散을 더빨리 만드러내엿다.

사람들은 갑작히이것가티 밀려온 어두운 海嘯의아페 疲困하엿다. 文學은 인제는 文化인 대신에 그疲困한무리에게細口로 서만 意義가잇는것가튼現象을顯來하엿다.

아무도 誠實한소리를 얏게나마 중얼대지안하엿다.

제각기 호터저서 제각기 웅크리엿다. 아페의 눈을 못가진 사람들은 초라하게 良心과世俗이不安定한길우를 어슬렁거리엿다. 이러는동안 더욱더욱 곰마가는 市民社會의 淋巴液들은그러키에 그러한限 가질수잇는言論과行動의 自由를 利用하야더욱化濃하엿다. 마치 그것은 監督者가 外出한뒤의 不良少年의무리엿다.

評論家는 饒舌을느리고 다른 사람을 睡篤하는데에서 快樂을 엇기를 조하하고 或은 사드린 或은 偶然히본雜輯을 자랑하고 재처먹기에急하야 惡臭나는排泄을하고……그리고 不幸히 女子엿던 作家들은 글을쓰는 모든 婦人들과함께혼司「女流作家」가 되여지고말엇다!

婦人作家들은 女流作家에로轉落하엿슬뿐만아니라 女流作家인 것에 安住地를發見한듯이보엿다.

나는 이말을 몃번이나 되푸리하엿다. 그러나 이單純되풀이 말속에는 진실로 作家──特히 婦人作家들의 基本的問題가 숨어잇지안흘수업다. 從來의 가튼 濕氣에 저저서 곰팡을 依然히 피이거나, 그러치 안흐면 우리의文學發展을위한 共働者로서 精勵를하거나의 決定이 갈추어잇는것이다.

女子인作家는 우리文學의 發展을위한 共働者라야한다. 一定한 社會에서 그社會의 文化的水準은 그社會에屬한 婦人의文化的水準에依하야 尺度된다는眞理를 信頼하는우리는 우리의婦人作家의 文學活動과 그成果에 依하야 尺度되는것을 생각할수 잇스며 따라서 우리文學 發展을 위한 主要한 課題로서 婦人作家의 問題는 決定的인意義를 갓는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내가 우리라고 하는것은 特別한意味를 가즌것은아니다. 다만 朝鮮文學(文化)을 위하야 늘 發展의面에서 誠實과 眞實과를 獲得하려는 사람들을 모다 包含하야 親愛한呼稱으로 불을따름이다. 爲先은各各의 世界觀이나 製作的流派의 相違를 看過하고 目前의 單一한 惡의障碍와 싸우며 眞正한 文化의一翼──文學을 建設하려는 甲, 乙, 丙, 丁……을 意味하다──

여기서 우리는 잠간 婦人그自體를 極히 槪念的으로나마 論議의 中心으로 하지안할수업다. 原始共同社會에 잇서서는 男, 女의差異는 自然의 克服過程에서 다만 性的差異밧게 아니엇다. 그리고 그生理的差異에基한 勞働의分擔이 이미 생겻나할지라도 社會生活그自體의 全體속에서는 何等의 區別도 差異도 안하엿다 그러므로 그때의藝術—노래와 춤에잇서서도 男女各各의特異한 社會生活을 反映한 것이各各이 成立할수업섯고 그러한必要도 업섯다 노래부를때 音聲의 高低만이 男女를 區別하엿슬뿐이고 다만잇는것은 人間의노래엿슬뿐이다.

그러나 氏族共同體가 各個의 家族에로 分化되고 따라서 私有財産의 發生과함께 母權는父權에로 옴고 이것은 어머니의 貞操를 要求하엿다 貞操라는觀念은 性愛가 物質的인것으로말미아마 純粹하게保全될수업다는 危險아래에서만 發生하엿다.

씨를 胚胎하는것으로부터 防禦되여 저야하엿고 그리하야婦人은 家庭이라는 괴짝속에 갑추어진 生存이 可能하야 더욱 더욱 生産勞働에서도 社會生活에서도 물러나게되엿다.

東京新劇界의概況 (上)
金 承 久

主로 東京에잇는 新劇團體를中心으로 그의紹介와 解說의形式을밟기로하자. 現在 日本의新劇을代表하는것은 新協 新築地의 兩劇團일것이다. 以外에 傍系的으로 築地座 創作座 中間演劇團體인 井上正夫一座 映畫의歌舞伎 新派 新劇을網羅한 前進座를 헤아릴수잇다. 以上 新劇의代表的劇團과 그傍系的存在인名劇團의 由來如何는 日本演劇史의 한일이니 여기서는 單히 그가가진바方向과 藝術的前進面에 잇서서의 問題를보기로하자.

一九二四年 小山內薰 土方與志가 創立한 築地小劇場을中心으로한 日本新劇運動(勿論 그以前부터 繼續되엇지만)으로 單히 그 傾向이 海外劇의 實驗室的存在에 不過하얏다가 日本社會運動의 全線的發展에따라 이에合流(築地小劇場의分裂과함께)하야 所謂 藝術性을沒却한 政治主義的푸로레타리아演劇(푸로트)에 이르러 一九三四年에 그의主體的힘의 沈滯와 運命을가티하얏다가 푸로트解散 (一九三四年)直後 이러난新劇大同團結論과 함께日本의新劇運動은 어느程度의 健康性을가지고 正當한 軌道에 올나서게된것이다. 이過程을 順序잇게밟고 오것은 勿論 新築地劇團(一九二八年創立)과新協劇團(一九三四年創立)일것이다

一九三四年七月에擡頭한 新劇大同團結運動은 過去의「푸로트」가 가젓든 政治主義的過誤 卽演劇이 藝術로서의 獨自性을 일코 다-만政治運動에 몸을파럿든것에對한 批判에 始作하야 그뒤에 올 새로운 演劇形態로의 進展을劃策한 運動이라할것이다. 이結果로 同年九月에 新劇關係者들이 모여서 新演劇協會(現在의 新劇俱樂部)를 맨들고그略稱「新協」을 빌어서新協劇團이創立되엿다 (大同團結論는다만前푸로트系의一人物만이아니라 廣範한意味에서 一이르는 進步的 良心的 演劇人들이 參加된것이다. 이때부터 發展的레아리즘의 旗幟를 내세우게되엿스니 여기에 이르러 新劇人은 過去의「아지演劇」을 批判하고 藝術的獨自性과 豐富性을 가진演劇으로의 進展의 必要에 覺醒하게되엿다. 卽 眞實한態度에서 人間的行爲안에 깁히 백힌 現實과 그의矛盾을 뒤집어내며 人間의 進步性을 阻止하는 社會發展의逆行的面을 否定하며 그逆行과 進步의새에끼 矛盾의統一을 人間的性格에서 發見하고 또한 그것을 社會全面에서 探索하며 그의 歷史的發展에 忠實하려는 態度를 갓게된것이다. 다시말하면 부르조아·레아리즘이 가진 部分的, 또는 斷片的現實觀과 唯物辨證法的創作方法에서보는 生産과 人間의 機械的結合으로因한 人間性의沒却 等의誤謬의 批判우에서서 現實과 人間을把握하려는 態度이다. 이것이 現在 日本新劇의 創造的態度를規定하는 大要이듯하나 發展的 레아리즘의 藝術에對한 原則的態度에 不過하고 다만 政治主義에 사로잡혀 이것은그것을 다시 차저내다는것에不過하다. 또 이것은 二三年來 評論界를 風靡하던 社會主義的레아리즘과 同意(日本的現實에該當한解釋)한것이고 單只用語의相違인듯하다.

이發展的레아리즘이 演劇的創造面에 엇떠케 實踐化되고잇는가를보면 遺憾으로 그만한 水準을 가르치는 戱曲의出現을 보지못한다. 맛치 이것은 目的物업는 調理台에 칼만 갈어들고 서잇는셈이다. 이것은 劇作에 잇서서 一般劇作界에 그대로 通하는 것이라 안인가한다. 다만 新築地劇團, 新協劇이라 演技에 잇서서도 發展的演技라는用語를 쓰고잇나. 이用語는 村山知義氏가 맨든 말인듯하다. 發展的演技란 在來에하든 說明的演技의批判 即發展的레아리즘演技의 略語이며 台詞와의「제스취어」가 時間的으로 同行하며 說明하는 一般的平面的演技에서 한층더發展한演技 卽, 現實的인 同時에 戱曲이가진人物의 性格을 舞臺우에創造함에 잇서서 一般化된그것을 버서나서 또는 概念的으로 그것을規定할것이안이고 不斷한 現實生活의 觀察과 經驗에서 어든것으로戱曲의 性格을自己만에서 再構成하야 表現할것이며 그때에 처음으로 演技스타일의 發展的多樣性을가지게된다는것이다 그럼에는 現實이 가진 一般的現象속에 숨은 眞實性의探究 (無意識的으로움직이는 그人間의 心理的 뉴안스等)에 努力할것이다 그때 처음으로 現實을 舞臺우에 再現시킬때 各人物(自己의役)이가진 微妙한 感情과 心理의 뉴안스를 表現할수잇다고한다. 이것이 現在 新劇俳優들에게課된 目標이다. 村山知義氏는 이發展的演技에 對하야『테아토로』五月號에 제스취어 를 各細部에 分析하야 說明하고잇다.

…漢詩…
落花　押春　桐岡 考選

佳作之一之二　平澤驛前碑前里 紫蘭山人

枝頭片片落無因
猥藉還成滿地春
苦待一年方悅目
未經十日又傷神
隨風散去飛紅雪
枕草橫陳作繡茵
爲惜殘香看不已
可憐猶似墮樓人

嘘言檢知機
世界의話題
興味의科學 (下)

實驗上나타나는 精神現象

大體로 精神電氣現象(精神의變化로부터 생기는 電氣現象)은 넷날부터 相當히 學者들의 着目해섯든 現象인데 그중에도 感情 情緖 喜怒哀樂等은 此種의 現象을 이르키는것으로부터 그것을 感情測定에 利用할라든 사람도 不少하다 또當者가 自覺하지안흔 程度의 心臟의 動搖가 電氣的變化로 表出시키는點에 着目하야 所謂「콤푸렉쿠스」診斷無意識下의 感情, 觀念의 덩어리의 診斷에 使用한者도잇고 精神의感動性을 多少아러가지고 어떤種類의 職業人의 性檢査로 使用한 學者도잇다 이것을 다시말하면 精神電氣現象을 어떤 特定한 精神現象이 아니고 여러가지 種類의 精神現象에 따르고잇는것을 意味하는것으로서 決코 虛言만이 이 現象을 이르키는 唯一의것은안이다 마치 發熱만으로서는 病의症勢를 알수업는것가치 電流計의 振動이 크다는것만가지고는 그것이 정말虛言으로부터 이러낫다고는 診斷할수가업다.

假晝 實驗을 여러가지로하는중에 棒을 마음대로 擇한때에萬若 被檢査者가 假晝三百圓의金錢에窮하야 三百圓, 三百圓하고 生覺을 하고잇섯다면 嘘言을했을때에 振動보다도三百圓에對하야 크게 變化를 示하리라고 生覺한다 實際로經驗한 例로서被檢者에게 春夏秋冬의 한가지를擇하야 記憶시키게해가지고 嘘言의 檢査를한結果夏와秋에 對하야 甚히큰 變化를 示하기때문에 어떤것이 거짓말에 依한變化인지 決定하지못한 例가잇다 이것은 被檢査者는 夏를 擇하야 記憶하고 夏냐고 質問할때에 안이라고 嘘言의 對答을하엿는데 그被檢査者는 詩人으로서 秋에對한 病的執着이 잇섯든것이다

以上의 事情은 거짓말發見의 實驗實的硏究를 行할때에 여간 妨害가되지안허서 適中率을 나뿌게맨든것이다 同時에 그方法을 實社會에 使用할때에는 퍽 利益이되고 診斷하기도 쉬울다 왜그러냐하면 實際는實驗的이아니고 眞正한 거짓말을 해야할때에는 거짓말이 머리에 떠올러부터 良心에 苛責을바더所謂 "콤프렉스"가 따르는 事實의否定인 때문이다

그러기때문에 實驗的硏究로서는 될수잇는대까지는 感情的聯想이 적지안은것을 材料로하야 實驗的 거짓말을 硏究하고 또 實驗的 거짓말이라는 問題로부터 떠러저서 感動度의硏究及 感動의硏究를 각기 따로따로 行할것을 希望하는바이나 實社會에 應用할때에는 이모든것을 綜合하야 愼重히 吟味하야 診斷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거짓말發見器에 器械及 技術方面으로는 아직도 改良하여야할 點이만흐므로 速히改良하야 實用할날만 기달리고 잇슬뿐이다.

新刊紹介

▲ホームライン 七月涼風號 發行所 東京市日本橋區本町一丁目ホームライン社 振替東京一二一番 定價十錢
▲聖火 七月號 發行所 京城府社稷町三一ノ七 聖火社 振替京城二三一三七番 定價十錢
▲朝鮮地方行政 七月號 京畿道販賣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 六九朝鮮地方行政學會 振替京城二四七〇三番 定價五十錢
▲月刊野談 七月號 發行所 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八 月刊野談社 振替京城二六三五一番定價二十錢 送料一錢
▲週刊太陽 第五號 發行所東京市赤坂區表三ノ二四 心交協會 振替東京六三三六八番 定價十錢
▲梨花 第七輯 發行所 京城大峴町 梨花女子專門學校 學生基督敎靑年會 文學部 定價四十錢 送料六錢
▲朝鮮山林會報 六月號 大會特輯號 咸南紹介 發行所 朝鮮總督府農林局內 朝鮮林會 振替京城九六八二番 定價三十錢 送料一錢
▲活泉 七月號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三丁目三五 東京聖敎會聖潔敎會出版部 振替京城一一五五〇番 定價二十錢

映畫에서어든콩트
沙漠의花園
李 泰 俊

작년 여름 S어촌에서다. 해수욕을 하고날때마다, 저녁산보를 할때마다 김군은

『제길헐 차집이나 식당이나 하나 잇스면 오죽 조하……』

하고 버릇처럼 중얼거리던 판인데 하로는 원산사람이 와서 식당을 채린다는 소문이 낫다. 소문는 곳해수욕장 솔밧에 실현되엿다. 빠락크라기보다 천막인편으로 아직 간판도 나붓기전에 김군과 나는 차저갓다. 짐상은 사이다와 삐루궤짝을 들러노하고 레볼도 송판으로 아모러케나 못질해세워 팔굼치를 좀 언즈니까 바닥이 모새기도 햇지만 이내 한편으로 썰쿠러지는것이엿다. 그래도 벽노지를 덜고 그우에도 엽서만한 종이에 메뉴부터는 써노앗는데 가루피스 수이다 삐루 오야꼬돔부리 옴우레스… 이러케 쾌 여러가지가 적혀 잇섯다. 그때가 점심때엿던지 우리는『오야꼬돔부리』를 주문하엿다 그랫더니 주인이지 쿡-이지 모를『사루마다』만한 반바지에 게다를신고 이마에 두드럭두드럭한 여드럼을 비비고 섯던 청년이 허리를 굽신하며 아직 닭을 사지 못햇서『오야꼬돔부리』는 될수 업다 한다. 그럼 무엇이 되느냐 하니까『옴우레스』나『사까나후라이』는 꼿 된다 햇다. 우리는 그두가지를 다식히니까 그는어느구석에선지 부채를 한자루 집어다 노터니 숫불는소리가 나는데로 드려가 버리엇다. 그리고 그의대신으로 나타난사람이『하나꼬』라는 이식당매담이엿다. 아까 청년보다는 나이 훨신우인 여자로 가까이 드려다보니 나이사십이나 되엿슬듯한쪽이엿다. 족도 아니요 트레머리도아닌머리에 기름을 르지도못하게 칠하엿고 얼굴은 허나 그것도 여러번 처다보니까 벗들보지못한때문이지 가즘은두꺼운 눈뚜덩이요 빰이요 잇솔이엿다. 적은듯우에는 눈섭조차 적은듯 거이 전부가 그런것이엿당. 그는 우리압흐로 와서부채 질을 해주엇다.

『당신 나이멧살이요?』

그는반이 금니투성인 이속을 히죽열어 웃기만 햇다.

『당신 이집 매담이오?』

『매담이 뭐야요?』

그는 생긴것처럼 매달도 모르는 짤이엿다. 이름만은『하나꼬』라고 이내 대여주엇다. 왜이름을 그러케 지엿느냐니까

『꼿이라면 손님들이 만히오시지 안허요?』

하고 저도 어색한듯 큰 소리를 내여우서버리엇다. 남의 면밥을 잘주는 김군이

『제길헐 이름만 꼿이면 꼿인가 어서 저기가 음식이나 빨리 만드러와……』

하니까 얼굴이 시뻘개서 부엌으로 가버리엇다.

음식은 그메뉴의 글씨나 또『하나꼬』나처럼 못 만들지는 안엇다. 꽤 맛나게 먹은 우리는 그다음날도 차저갓다. 그리고그날은 유성기소리도 들엇다. 멧장 안 되는것이 모다 유행가부스럼이뿐이엇스나 기중 좀 나흔것은『사바꾸니 힘아 구레데』하는 노래여서 우리는 그것만 서너번이나 겨퍼틀엇다. 그리고는것을 우리가『사바꾸니 힘아 구레데』와 매담『하나꼬』를 합하여서『식당 사막의화원』이라 하려지여주엇고 김군은 간판까지 써주어던것이다.

우리는 이식당『사막의화원』에밤에도 가끔 갓섯다. 갈때마다 놀라운것은『하나꼬』는 우리에게만 꼿이 못되는뿐, 이 색채에 주으린 빈한한 어촌청년들에게는 자기의 이름대로 훌륭히 꼿노릇을 하는것이엿다. 모혀드는 청년들은 대개『하나꼬』보다 어린청년들이엿스나『하나꼬』는 꼿잘 그들의 무릅에 안자 맥주를, 혹은 소주를따르며 그어설핀 애교에도 멍-하니 혼이 나가서 건침을 삼켜가며처다보고안젓는것이 김군의말대로하면 이거미의 최후먹이들이엇다.

그런데 사막의화원이 열리어한 열흘쯤 되여서다. 점심을사먹으려고 가니까 쿡-이 매를맛고 누어 꼼짝을 못한다는것이엿다.『하나꼬』는 잘 대이지를 안허 동네청년들에게 물어보니 지난밤에 자는것을 누가 뚝땡이를 드러던저 골이 깨여젓다는것이다. 원인을 물으니『하나꼬』가 말로는 그 쿡-을 족하라고하나 사실은 서방이라는것을 엿보아알앗기 때문이라는것이 집작이라고는 하면서들도 그좌풍군들의 일치되는 대답이엿다

우리는 그날인가 그이튼날인가 외금강으로가서 한 일주일 묵어서 왓다. 오는길로 우리는 궁금하기도 하고 무얼 좀마시고도시퍼 사막의화원으로 갓든데 웬걸, 사막의화원자리엔 겹당구는 돌멩이들과 손독저 부러진것들과 수지쪼각들만 함께 널렷슬뿐, 기둥 하나 남아잇지 안헛다. 모래바다엔 지난밤에 쏘다진 빗물자리뿐이요 바다에선 파도소리가 노피 부서젓다. 마침 지나가는 주재소급사를 붓들고 물어보니, 하나꼬는 원산 어떤 유곽에 매인 몸으로 어웃 요리집 쿡-으로잇는 그사나이와 정이들어 도망와던것이라 한다. 그래 사나이는 순사에게붓잡히고 계집은 포주에게 붓잡혀 매를 한마당이나 맛고 원산으로 끌려갓다는것이다.

사막의화원! 우연한 일이엿스나 우리는 그들의 행복의등지를 이러케 단명(短命)하게지어준것을 후회하엿다 그리고아직 이마에 여드름이 두드럭두드럭한 그 청년의 쿡-군보다 청춘이란 란령은 다 꺼저버린그 결코 꼿답지 못한 하나꼬의인생(人生)을 생각하고 우리의해변산보는 오울하지 안흘수 업섯다.

─六月十九日─

第三回 全朝鮮男女音樂콩쿨

開催期日 九月下旬　申請期日 九月五日까지
曲目 二曲을演奏하되 一曲은本會指定曲을取하고 一曲은隨意로함
【聲樂】 DER WANDERER (放浪者)=슈벨트
【피아노】 IMPROMPTU (即興曲) NO.4 (作品九〇)=슈벨트
【바이올린】 CONCERTO (協奏曲) NO.6 (B FLAT) 第一樂章=로-데
參加資格 全朝鮮男女로하되聲樂은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二圓과伴奏料一圓을申請書와함께本社庶務部로交附함 (但한번申請한뒤에는申請金을一切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本社로부터공쿠賞金을授與함
審查委員 金永煥 洪蘭坡 朴慶浩 玄濟明 桂貞植 金元福 鄭勳謨 朴泰俊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六月三十日부터七月二日迄三日間 土曜日·祭日은晝夜二回 晝十二時부터六時까지 夜七時半始映 料金階上 三十錢 階下二十錢均一 (絶望의巨大撰封切)
◇파라마운트社二十五週年紀念大作全發聲日本版 開拓者活劇 平原兒 巨匠 세실B데밀氏監督作品 名優 게-리-쿠-파-氏主演 花形 진·아-사-氏助演
◇マキノトーキ株式會社全發聲映畫 時代名活劇 決戰荒神山 監督……牧 六 主演……澤村國太郞, 大內春代, 村田宏壽, 月形龍之介
次週=鐵人對巨人、警官과女賊
京城新町 電(本)五六七七番 新富座

六月廿七日밤부터…… 古代名劇高級上映! 朝鮮聲樂研究會公演(第十八回) 一流名唱總出演! 開演午後一時十分七時卅分 ▲上演劇本▼ 改良演劇 歌劇『沈淸傳』 六幕八場
東洋劇場
◇六月三十日부터三日間!! 每日晝夜二回上映낫一時밤七時半始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파라마운트社超大作全發聲日本版 (巨大爆笑活劇週間!!) 西部大活劇 叢林의絶叫 監督……오소리보링氏 主演……라리바스타크라부氏 가스링레말孃 토무!킹氏
◇マキノ超大作全發聲版!! 時代劇 加賀見山 監督……根岸東一郞 主演……原 駒子 松浦 築枝 特別出演 マキノ智子
◇マキノトーキ超大作全發聲映畫 喜活劇 二階の花嫁 監督……久保爲義氏 主演……田村邦男, 島津勝二
桃花劇場 電(龍)一三三三番

◇六月廿九日부터三日間公開 晝夜二回始映 (낫·一時 밤·八時) 大衆料金 階上十錢 階下十五錢均一
=三大映畫上映=
◇파라마운트特作映畫 宗敎映畫史上大金字塔! 이스라엘의月 妖艶마리아쿠라孃主演
◇雄大한세트! 絶對豪壯篇! 流新키네마特作映畫 名監督 李圭煥作品 朝鮮名劇諷刺劇 님자업는나루배 羅雲奎·金蓮實 文藝峰·林雲鶴 主演
◇서울키노第一回作品 監督 金幽影作品 朝鮮映畫悲活劇 昏街 林 華·南宮雲 李英姬·石一唱 主演
光武劇場 往十里町

6月26日ヨリ7月2日まで 上映時間表
京日世界ニュース メトロ日本版 11·00 2·54 7·00
結婚クーデター 11·10 3·05 7·11
朝日世界ニュース 12·57 4·51 8·57
大船トーキー NO180 幸福の素顔 1·10 5·06 9·10
午前11時迄早朝御優待 終演10·24
明治座

眞珠와未亡人 로버ー트·몽고메리ー·윌리암포ー엘·존크로포ー드세사람이主演한메트로映畵로보리와ー드·보레스라우스키ー

中央舞臺二回公演 農村劇"故鄕"

李箕永氏原作을脚色

東洋劇場에서 脫退하야 興行劇의 低俗과 硏究劇의 아카데미즘을 排擊하고 새로운劇道를 닥거보겟다고 자난번에 創立된 中央舞臺에서는 創立公演을 지난달下旬에 府民館에서 열고 創作劇「바보張하翁」를올려서 힘든하게되엿다 그리하야 여기에서 그들의主張하는바 所謂中間的인 劇道의 可能性이 보이엿던지 急急히 第二回公演을 七月四日밤부터八日까지 五日間府民館에서 열기로되엿다

이二回公演에는 일즉이 本紙에連載된 李箕永氏의「故鄕」을宋影氏가 脚色하야 五幕十二場의 巨大한長篇劇을 올리기로되여서 連日練習을 바뻬하고 잇다 "故鄕"은 文藝的으로 이때까지朝鮮文學에서 最高水準에 올은것으로 이미單行本이나온지 오래며 文壇的으로 여러가지問題를 이르키던것인만큼 크게注目거리가되여잇다

그러고演出은 延鶴年 裝置는 金影氏가보기로되엿스며 出演人員이 六十餘名의多數에達하고 演協과劇硏에서 贊助出演이잇기로 되엇다

配役

創春甲甲朴仁방방金菊
娃 개 先
得三成淑女順개母達寶
獨太李南金李金姜宋李
孤乙敉宮愛白素貞在蘭
一民玄仙順姬英愛魯寶

晋全元 靑金의母 韓銀 仁成 朴貞淑 外 두레軍、村民等

스타ー寫眞에 課稅키로決定

【위싱톤發同盟】映畵스타ー가 全世界의 所謂에 應하야 署名해서 보내는 寫眞은 實로 놀다운數에 達해잇다。 그런데 財源에 窮한 米國上院의 財政委員會에서는 映畵스타ー 舞臺俳優 라디오出演者들이 팬에게 부처주는 寫眞에 課稅하라는案이 立案되엿다 萬若 이것이 議會를 通過한다면 팬들도 그냥 請할수업시 送料稅金을 添付하야 스타ー에게 寫眞을 請해야될것이다。

神秘의女性가르보는 어릴때約婚者가잇다

神秘의 女性으로 銀幕世界에서 여러가지 話題를 뿌리고잇는 그레다·가르보에게 十五年前에 約婚하사람이 잇다는것이 發見되여서 이도한 센세이숀을 이르키고잇다。 가르보의 約婚者는 누구인가? 現在그는 靑年은 巴里의 萬國博覽會에 오ー게스트라의 指揮를하고잇스며 過去에는 水泳選手로 斯界에 일홈을 떨치든 瑞典出生의 푸레드·짜크라는 사람이다 이 靑年과의 約婚이되여잇다는 事實은 가르보의 人氣에 關係되는일이엿스므로 一切發表를 避하고 잇던것으로 어떠케 요사이와서 偶然한機會에 짜크의 입에서 흘러나오게된것이다。 짜크와 가르보는 한故鄕사람으로서 一九二二年겨울 스토크홀므에 그女子가 單只 그레다·그스타손이란 처녀로 잇슬때 짜크는 설매끄는 馬夫엿섯다 어느날밤 가르보가 설매를 티고 으슥한 郊外를 지나서 自己집에 가는데 짜크는 그설매의 馬夫엿다 平常時부터 가르보를 그리워하던 짜크는 이날 밤에야 비로소 가르보에게 自己의 眞情을 말하게되엿다 가르보는 짜크라는 靑年이 비록 職業은 보잘것 업더라도 사랑으로는 그다지 실흥편이 아니엿다 그리하야 이젊은 두 純情은 여기에서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엿다 그러나 가르보의 父母는 여기에 크게 反對하얏다 만나지안코는 못배이는 그들이라 父母의 눈을 속여가면서 하로에도 몃번식 만나서는 情熱을 조이고 지나왓다。 그러나 最後의 날은 닥처왓다 가르보의 어머니는 「萬若집을 떠나서 全部絶緣을할테면 짜크를 사랑하는것이 조흐나 집에 잇슬테면 짜크와 만나지 말라」하고 嚴格히 命令하얏다。 그리하야 가르보는 눈물을 먹음고 짜크와 갈리지게되여 成功할때까지 서로 만나지 안코잇다가 成功한뒤에 結婚을 하기로 굿게 盟誓하고 作別을 지윗다 그리하야 이날까지 서로 남모르게 편지로서만 消息을 傳하고 이일은 一切秘密에 부처왓다 쌀쌀한 性格을 가진 神秘한 女子로 일홈이잇는 가르보에게 이러한 로맨틱한 傳說이 숨어잇다는 것은 커다란 이야기거리가 안일수업다。

俳優十戒銘

終林에서 二十五年間이나 監督노릇을하던 젬스·푸래드가最近에「女優十戒銘」이란것을 發表하얏다

一、個性을 發揮하기爲하야 너무지나치게 메이엎을 하지말것
二、다른사람의 會話를 注意해들을것
三、流行스타ー의 본을 뜨지말것
四、세트에잇는 사람全體가 그 映畵의完成에 한사람이라도빠저서는될수업다는것을銘心할것
五、自己의役을 겁내지말일
六、忠告를 甚하고 모른는것을잘못는者가 이긴다
七、不自然한만네리즘ー사람의注目을끌기爲한演技는상가하다
八、세트에드러오기前에 自己마튼役을 硏究할일
九、무엇이던지 겁내지마라
一〇、自己의實力以上의結果를바라는者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디오

一日(木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謠와唱歌 一、齊唱 제비꼿 二、獨唱 기럭이 三、齊唱 시골아회 四、獨唱 참새학교 六、" 소낙비 三兄弟 七、獨唱 故鄕하늘 八、齊唱 꼿 九、" 참새의중 七、獨唱 별님 京城壬戌學院兒童 피아노伴奏 尹明仁 獨唱 劉學
◇同六時五十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經典解說 三綱五戒 金泰洽
◇同八時 趣味講演 不老長生이야기 毎日申報 柳光烈
◇同八時卅分 一、關山戎馬 二、긴아리 三、打鈴 四、寧邊歌 五、開城難逢歌 六、방아打鈴 崔貞子 金秋月 界面 二、樂 三、羽樂 四、靈界樂五、 洋琴 大笒 杖鼓 朴桃 金愛 金相 金一 編 琁 淳 永
◇同九時 歌曲 一、界面

第一放送

◇同六時(福) 講演
◇同六時三〇分(東)
◇同八時(大) 物語
◇八時三〇分(大) 俗曲
◇同九時(東) 長唄

二日(金曜)

◇午前一一時一五分 婦人時間 女性과文學 毛允淑
◇午後〇時五分 京城音頭 一、蟲 二、압山打鈴 三、鏡山打鈴 四、개고리打鈴 五、도라지打鈴 六、자진방아打鈴 李命吉 李命山 車載錫 金永運
◇同六時 英語講座(五의三)
P·O·파ー킨스
◇同六時三〇分 兒童と先生の時間 李昌善 普通學校 一、金の冠(讀本卷七第二十三課) 二、子どもとたんぽぽ(讀本卷二第十二課) 四年生 二年生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夏期課外講話「民族樂」 成
◇同八時 講演 여름과犯罪 辛泰嶽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人間써ー커쓰(朴英鎬作詩、李龍俊作曲)(崔) 二、港口의스다일(朴英鎬作詩、李龍俊作曲)(合唱(盧崔)) 三、處女讀本(朴英鎬作詩、白波作曲)(盧) 四、나홀로울때(李瑞求作詩、柳一春作曲)(崔) 五、珊瑚피는故鄕(朴英鎬作詩、李龍俊作曲)(盧) 六、寶與金만라면(朴英鎬作詩、李龍俊作曲)(合唱盧崔)
◇同九時 伽倻琴散調와倂唱 伴奏 崔南鏞 DK管絃團 一、散調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다、당의 二、倂唱 가、短歌 나、浿城歌 沈相健 杖鼓 韓成俊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大) 雅樂
◇同六時(城) 副業講座
◇同六時三〇分(東) 이야기
◇同七時三〇分(東) 寶紋樂
◇同八時三〇分(大) 漫才
◇同八時四〇分(東) 箏曲
◇同九時(大) 時事解說

三日(土曜)

◇午前一一時一五分 衛生講座 어린이皮膚病
◇午後〇時〇五分 國樂 尹元錫 映畵物語 徐相弼 無
◇同六時三〇分(平)兒童劇 「종달새」 指導 崔恩錫 平壤 반달會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〇〇分 夏期課外講話 植物採集 梨花女商教 李德鳳
◇同八時 經濟解說 最近米國의物價政策 林炳載
◇同八時卅分 漫談 「여름나그네」
◇同九時(東) 室內樂 黃材景 一、不安 글렁카作曲 二、배노대 오펜바하作曲 三、가봇트 마르틔느作曲 四、사구라사꾸라 齊藤秀雄編曲 六、세리나ー데 토세리作曲 七、農民舍 하르트만作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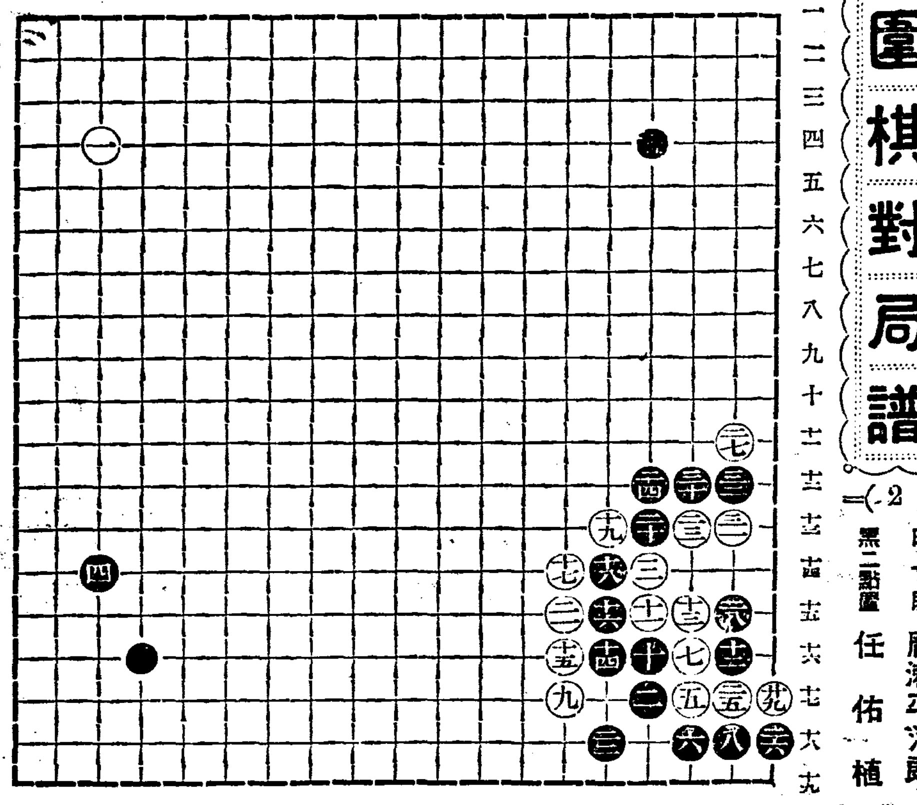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城) 三曲
◇同六時(城) 講演
◇同七時卅分(東) 清國
◇同八時(京) 岡山節
◇同八時一〇分(東) 小唄
◇同八時二〇分(名) 浪花節
◇同九時(東) 室內樂

圍碁對局譜 (2)

本社主催

白 七段 廣瀨平治郞
黑二點置 任佑植



二十七 ○ 己의十四
二十八 ● 戊의十四
二十九 ○ 戊의十三
三十 ● 丁의十三
三十一 ○ 己의十五
三十二 ● 戊의十八
三十三 ○ 丙의十三
三十四 ● 丁의十二
三十五 ○ 乙의十七
三十六 ● 甲의十八
三十七 ○ 乙의十一
三十八 ● 乙의十五
三十九 ○ 甲의十七
四十 ● 丙의十二
四十一 ○ 乙의十三
四十二 ● 乙의十二

觀戰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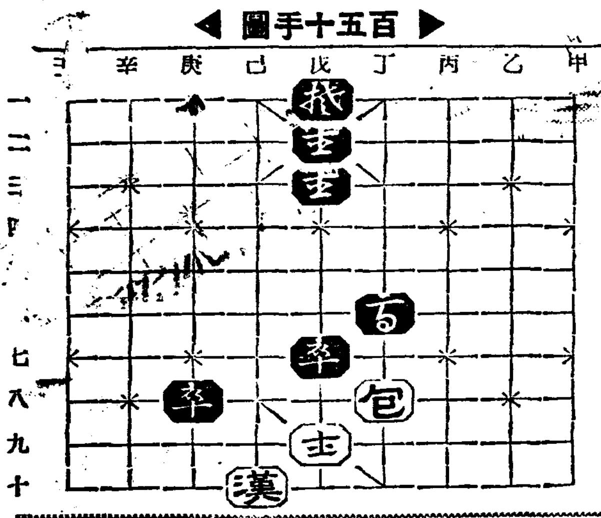
白이戊의十三으로 黑進路를 遮斷하니 白의自陣狼狽도 亦是不無하다 黑이乙의十五延하을 白이 甲의十七抽立은 妙點으로 推想된다 前路에曲折이 重重하니 出乎不意對於寡이잇는지 實爲觀光者企待之哾也로다

將棋名手對局譜 (六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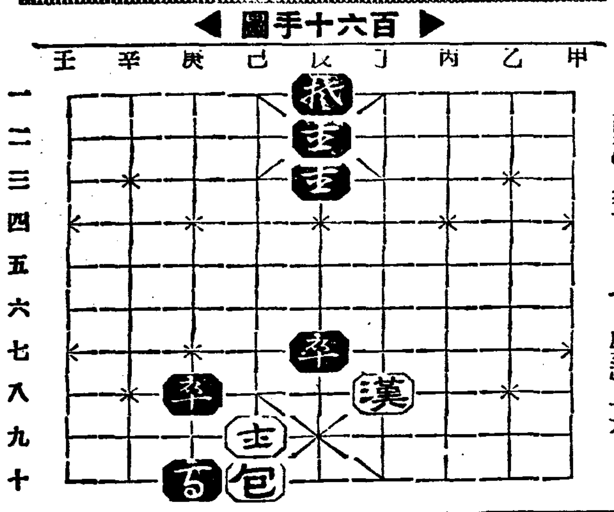
本社主催

漢 李在鳳 楚先手 許鏞

百五十手圖



百六十手圖



丁⑮ー戊⑯ 戊士ー丁八
己⑮漢ー戊⑰ 辛⑮ー壬九
戊⑱ー己⑰ 丁⑱包ー己⑰
戊士ー己九 壬九⑮ー庚⑰
己⑮ー辛 戊⑮漢ー丁八

中國映畵界의近況(上)

嚴格한映畵統制 政府에서技術者養成

우리는太平洋저편에잇는 格林의 이야기와 그곳의 映畵에 對하야서는 여러가지로 알機會가 만헛다。 그러나 각각게잇는 中國의 映畵界에 對하야는 거이 白紙에 가갑도록 아는것이업고 알 機會가적엇다。 이것은 그나라의 映畵作品을 우리가 자조 對할機會가 적엇슴이 原因일것이다。 中國映畵에 對한 極히 적은 理解라도 갓는다는것은 아프로 朝鮮映畵와 中國의 그것과의 어떠한 文化的關連을 가질 契機를 만드는데 意義가 잇슬가。

沿革

中國映畵의 誕生은 지금으로부터 三十年前의 일이다。 淸朝末葉에 外國映畵의 輸入에 刺戟된 舞臺人사이에 映畵製作이 論議되기 始作하얏다。 그中 張石川(現明星公司長)鄭正秋(前明星公司支配人) 杜俊初等이 모이여서 米國人벤자민프라스키ー가 創設한亞細亞影片公司(차이나·씨네마·컴파니)를 民國二年(一九一三年)에 買收하야 『新民公司』를 設立하얏다。 이것이 中國映畵會社의 嚆矢이엿다。 當時에는 어디나 마찬가지로 幼稚하기 짝이업섯스나 世界大戰이 産業界에 一大革命을 招來하야 映畵事業도 生産部門에 堂堂히 登場하게되뮈 中國映畵도 急激한 發展을 가저오게되엿다

그뒤에 前記張石川 鄭正秋等이 一九二二年에 明星公司라는 映畵會社를만들고 『孤兒救祖記』를 製作하야 空前의大成功을 하여서 映畵企業의可能性을 立證하얏섯다 그때가마침 大戰後의 好況時代이엿슴으로 映畵事業에 資本의 投下가 만허저서 一九二五年에는 十四個의 映畵會社가設立되얏다 그해에 五十個의 作品이 製作되얏스며 그다음해엔 七十六個의 作品이生産되엿섯다。

그뒤 世界를 휩쓰든 알게마이너크리제스(一般的恐慌)는 마침내 中國映畵界에 波及되여서 破産되는 映畵會社가續出하얏다。

그러나 요사이 二三年來로 토ー키ー의 出現과 經濟界의 好況으로말미아마 漸漸回復되여서 質과 量의非常한向上을 가저오고잇다。

映畵會社와常設館

映畵會社라하야도 一年에 한個의生産을 못하는것도 잇고 만히하는것도잇는데 第一큰것이月平均一個의 生産을하고잇다。

一九三四年의 調査에依한中國電影年鑑을 살펴보면 다음과갓다

映畵會社 五十二社
南京一 上海四八 廣州四 香山一 重慶一
映畵館 二九〇館
南京市一三 上海市三六 靑島市五 北平市一〇 威海衛二 江蘇省一四 浙江省一五 福建省七 安徽省四 江西省三 湖北省一五 湖南省一五 四川省六〇 雲南省三 貴州省二 廣東省三七 廣西省八 山東省四 河北省二四 河南省九 山西 陝西 寧夏 甘肅 察哈爾各一

映畵統制機關

國民政府及國民黨은 映畵國策을樹立하고 映畵에對한 嚴格한 統制를 行하고 잇다。 國民黨宣傳部는 電影事業指導委員會를 設置하고 委員에는 政府要人이 多數參加되여잇다 그中 中央劇本(씨나리오)審査委員會와 中央電影檢査委員會라는 映畵檢閱機關이 잇스며 政府는 一九三四年에 七勳을爲하야 映畵事業獎勵條로된 辦法을 發表하엿다。

卽政府가 規定한 製作標準에 合致되는것에 限하야서만 上映許可를주며 씨나리오라이터 監督가메라맨 俳優等 映畵界에 貢獻하는사람은 百元以上五千元의 獎金을주기로되여잇다。 그리고 政府가直接 씨나리오를募集하야 賞金을주며 反政府的인 色彩가잇는것이면 全部가 不許可되고마는것이다 實例를들면 一九三四年十一月부터 一九三五年三月까지의 脚本檢閱은 三百三十四個中에第一回檢閱에 파스한것이 百五十八個 第二回에 파스한것이 百二個에不過하다 이것을다시 製作하야 檢閱을너흐면 半以上이것毒을當하며 製作中에도 臨時로 檢閱을박게되여잇다。

이처름 中國映畵는 檢閱이至毒스러우며 이로말미아마 製作費와 日數가豫想以外로 만히걸린다 月平均一作박게못내는것도 資本의窮乏보다도 時日의關係가만흔것이다 또한國民黨宣傳委員會는 一九三五年南京에 中央電影撮影場을設立하고 뉴ー스의製作에 着手하야 最近은뉴ー스뿐만아니라本格的作品을 生産하는데 昨年에는 革命戰爭에 取材한『戰士』를 發表하얏다 이곳에서는 지금 盛히技術者와 演技者와中國의 製作家를 養成하고잇는中임으로 民間事業과 다투기고잇다。(續)

再版또賣盡! 三版發行! 今日發賣!

賞讚 또 賞讚 滿天下讀者의 熱狂的歡呼裡에 暴風的으로再版이 賣盡되엿스므로 이에 三版을發行하야 苦待中의 滿天下讀者에게 今日부터 發賣합니다

定價一圓 (普通送料十六錢 書類送料二十二錢)

現代朝鮮女流文學選集

紙價狂騰의이때 犧牲的廉價提供. 豐饒한內容豪華美本. 文化人으로 반다시한卷식은 가저야할冊. 小說.詩.隨筆.時調十五餘篇總三百三十頁豐富한 內容 鄭玄雄裝幀 半크로스金字入美術製本 그라비아版作家寫眞十五葉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發行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番

世界傑作童話集

出版部推薦 銷夏科外讀物!

불타는녹음과함께고이고 이자라나는우리七百萬어린이들에게아름다운이야기를들려주십시다학교마다이책을보관하십시요집집이이책을사서두십시오반듯이어린이의귀여운령혼을아름다이길러내는량식이될것입니다

紙價暴騰에이低廉!! 再版發行

發賣中

純眞한靈의糧食 情緖敎育讀本 거츠른環境과情調的으로 자라나는이땅의어린이들에게 人間的愛情의 金貨하프와 같이 될 珠玉名篇

文壇大家總執筆 十五國代表童話 世界각나라의 第一잘시은 아름다운童話를 우리文壇十五大家가 뽑아서 쓰신것이니 장담하고 勸합니다

누구나읽을한글책 아름다운內容 三百餘페지 美麗한裝幀 插畵 또그우에 細한글로쓴 누구나읽을수잇고 자미나는책이것이니다

奉仕定價 (八十錢) 送料九錢

執筆者氏名
(日本)張赫宙(中國)朱耀燮
(米國)徐恩淑(印度)李殷相
(佛國)李軒求(西班牙)柳致眞
(英國)白石(愛蘭)金珖燮
(土耳其)朴龍喆(露西亞)咸大勳
(獨逸)曺喜淳(和蘭)金管燮
(丁抹)李甲燮(朝鮮)田榮澤

十冊以上 先金注文엔 特別二割引 送料負擔

發行所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八七八五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中部版

"버리"는江原道에서· 納稅는京畿道에!

不合理한京春自動車運輸의 主管問題로江原道民不平

【春川】교통운수의감독주관문제로 강원도(江原道)와 경기도(京畿道)당국간에 알륵을보게되여 교통운수계에 적지안흔파문을주고잇다 춘천지방의숙망이든 경춘철도의실현을보게되자 교통계에 큰충동을주고잇는데 현재경춘철도주식회사(京春鐵道株式會社)에서는 려객과화물자동차업을겸하야 경영하는바 그선로는 실로전강원도(江原道)를 무대로활동을하고 잇는바 그주관감독(主管監督)을 경기도(京畿道)당국측에서는 본사(本社)가경성에잇스니 경기도에 등록할것이요 납세도물론 경기도에 하는것이 가하다고주장하며 강원도당국측에서는 자동차선로의본무대가 강원도관내에잇스니 강원도에서 주관감독하는것이 가하다고하야 큰알륵을 보게되엿다 그런데 근자에 듯는바에의하면 평강(平康) 충주(忠州)남부선을 경계로 서편을경기도주관으로하고 동편을강원도주관으로한정을 한모양이나 가장 중요지인 령서(嶺西)지방일대는 전연경기도관할의자동차만이 왕래하게되며 전연강원도의도로를 사용하면서차량세(車輛稅)는 경기도에 납입하는 불합리한 현상을내이게되엿스니 경춘철도자동차교통운수사업(京春鐵道自動車交通運輸事業)의 주관감독(主管監督)의 대부분을 경기도에서 한다는것은 강원도개발상 재고할필요가잇다고하야 일반도민의 비난이자자하다고한다

素砂에도喜雨 그러나아즉도不足

【素砂】사십여일이나 비가 아니와서 매일가티 비를 기다리든 소사지방에도 지난이십오일경부터 날이흐렷다 개엿다하드니 지난 이십六일오후부터 장마에 한바가리 비가쏘다저 서방소식은조흔하다하나수전에는 아직도 부족이라하며만일사오일내로 비가 더오지안하면 밧작의 흉작이나 다름지안타하야일반은 불안에 싸여잇다고한다

흥분의 운임을하기로하고시에 그동안입한든 ...을 박거되어 고향으로도라가섯는데 제송충예국정수불매에관한 흥화를못고

가계안넘어지중소시에 구산을 향공기계작배와 일두도씨달라고 순경을통하야연금 봉하의 외사에따려이현금을 속장이 육(?)다한다 에 의뢰해왓스므로 울에서는속시 제국비행협회 조선연방회지박부에 현금수속을 완료하얏다한다

東檢島에굴獎勵 江華漁業組合에서

【江華】해안지대에잇는만치 해산물을 장여하기위하여 강화어업조합에서는 동검도(東檢島)에다가구백여평의해안을정(定)하고 굴을주어다가 깔고 거기에굴을 번식시키기로하여 길상면의지도하에 일을 착수하게되엿는데때가 맛침어업시기가 되여서 남자들은전부고기잡이를 나가고업는때가되엿슴에도 불구하고 일반부녀들은 자진출동하여서 당일로구백평에다 굴을이어다가 깔기에노력하엿는데 산업기수는 일반부녀들의 열렬한활동을보고 여간감격에넘치지안헛다고하며 그날비용으로 조합에서 일금육십원을기부하여주엇다는데 부녀자제씨는 기부금나오는것은 자기들의품삯이지만 이기부금은 동검도서당에기증하엿다고하여 여민들은 여기에대하여 부녀들의 교육열을감사하여 마지안는다고 한다

洗浦藥水"復活!

平康郡의補助金으로 設備도改善·定期自動車運轉

【洗浦】세포은선동(洗浦隱仙洞)은 역진에서 일리의지점에잇는 철도연변으로서 그근방에는 위암준봉(偉岩峻峰)이련립하고 맑은시내물이구비구비 흘러 그야말로신선이숨은듯 풍치가조흔가운대 벌서구년전부터 약수(藥水)를발견하여 김하경(金河卿)씨등세포주민들의 활동으로 주민의기부금과 군의보조금으로 약수터를 신축하며 도당 집을짓고 그근방에다가 려관등을 신축하여 일반병객들의 운집을보게되바 한가지불편한것은 통로가 불완전하고 또한거리가멀어서 항상유감으로역이든바 소화십년도 전강원도지사리범익씨가 세포약수포에서 삼주일수양함을 기회로서 서촌자동차부(西村自動車部)에교섭하여 매일이회식정기통행(定期通行)이되엿든바 그해칠월림우(霖雨)로말미아마 다리(橋)가끈허지고 길이험해저서 통행을 중지한채로 작년은그대로지낫다 그러나 여전히차저오는손님들을위하여 지난유월이십오일 김하경(金河卿)씨와 고삽면장 최민수(高揷面長崔珉壽)씨의 활동으로 관민유지일동을약수포에 초대하고 평강군보조비 오백원으로 도로개축과 약수장개수에 착수하엿다하며 도로개축과 약수장개수는 물재만 군보조비로 담당하고 품은전부은 선동주민과 평풍동주민이담당하기로하엿다하며 약수포발전과손님의편리를위하야 림시정거장설치도 운동하리라한다

素砂學術講習所 不遠許可될形勢

【素砂】루보=경인선 소사역전(京仁線素砂驛前)에거주하는소사유지최병희(崔炳熙)(五○)씨의자진희사를중심으로 부근의 아동들이륙년제도의 보통학교를 졸업하고상급학교에 입학치못하고로상에서 헤매이는 전도유망한어린이들을 위하야 보통학교뒤확

水鄕幸州

寡婦를내쫏는 苛酷한烏山富豪

【烏山】경기도 오산에서 제일갑부의 일홈을듯고 명성이놉흔전자에 관직까지지낸 부호모는동면에 사는모과부(五○)에게 콩열말의 도조를 아니준다고혼자사는 과부의집에 철거를 명하야 지난이십유일에 집달리가와서 당신의 사정은 불상하지만은 법은 그러치 못하다고 하며 집을 나가라고 하엿다는데 그과부는 콩도조열말수지못한것도 이유가 잇다는데 그는지금부터 이년전에 그부자의 밧을소작하엿섯는데 그는 그과부에게그밧을 작답을하여 주면비용을주겟다고하야 그여사는 작답을하엿는데 비용이 삼십원이넘게됨으로 기왕자기가 소작하는것임으로삼십원만 달라고하엿던바그부자는 비용도 주지안코소작권까지 떼여다인을 주게됨으로 그여사는 그런데 도조를 동도어업을하며 버용시설할것으로 그만두것다고 하엿다는바 그와가티 전용케하게 한것이 과하다

假出獄한날 十圓을獻金

【春川】본적을 홍천군홍천면진리(洪川郡洪川面津里)에둔 이팔봉(李八奉)(二九)은 서대문형무소춘천지소에서 복역중 고천(古川)소장이하 각직원의 지도의주효로 전비를회개하야 개준의정상이 현저함으로 지난십칠일가

蠶繭팔러六"키로"길 途中에서順產!

五男妹거나린寡婦아닌寡婦 隣人同情으로겨우歸家

子寶도貴치안타 웬수의가난에고생살이

【洪川】지난류월이십구일 오후세시반경에 홍천잠견공판매소(洪川蠶繭共同販賣所)에서는 생활난이 지어낸인생참극(慘劇)이 연출되엿섯다 그주인공은 동군화촌면구성포리(同郡化村面九城浦里)에 거주하는 김룡수(金龍秀)의처 서(徐氏)(四○)로 남편(男便)은 생활난으로인하여 견대다못하여 금년봄에 돈버리를간다고 집을떠난이래 오날까지소식이업서서 서씨는 열두살먹은큰아들을비롯하야 사남매나되는어린아이들을다리고 초근목피(草根木皮)으로 기근을면하여 오든중 전부부생활에매저진 씨는만삭(滿朔)이되가지고 쫏들린그는 금년춘잠기에 한푼이라도버러서생활에보태쓰겟다는생각으로 양잠(養蠶)을하여 고치(繭)를팔려집을떠나 六"키로"지점인홍천면결운리(洪川面結雲里)에까지억지로왓슬때에 벼란간뭄이 이상함으로 급하여낫모르는 한하경(韓慶...)씨집에들어가서 게집에를 순산(順產)을하고 한씨부인의동정으로 더운국을마신뒤에 어린애기는가지고오든 좁쌀부대에다싸서노코 류혈중인 무거운몸으로 가지고오든고치를이고 잠견공동판매장까지와서 기지맥진한 말소리로 속히좀팔어달라고 황겁하게굼음으로 직원(職員)이 하도이상하여 물어보앗드니 그때에는 말도잘못하고 동행인다른노인에게 자세한내막을드러 듯는사람의가슴을 놀라게하엿섯다 자세한내막을들은 산내장시(山內壯市)씨는 곳 자동차를 대절하여 산모(產母)를태우고 홍천면서기(洪川面書記)송(宋)씨를 시키여 어린애기와 산모를 집에까지 다려다주엇스나 산모는 오래동안생활난으로 굶주린몸이라 젓(乳)이 나오지를아니하여 애를쓰며 장차사라나갈것을 생각하고 하염업시 눈물을흘리며 한숨만쉬이는것은 보는사람으로하여금 또한 눈물을흘리게하엿다

素砂崔炳熙氏特志 現金千圓을喜捨 素砂公普校移轉費로

【素砂】루보=경인선소사역전에잇는 소사공립보통학교학급증설문제의 원인은 교사이전문제는 수차보도한바 일반이 주지하는바어니와 금번리전문제의 기금이 부족됨도 이미보도한바이다 이기회에 소사의 유지최병희(崔炳熙)(五○)씨는 자진하야 리전비용에 사용하여달라고 일금천원을 희사한바이며 씨는오륙년전에 노사공보의 후원회장으로 그간학교당국에 막대한공헌을 남기고 씨는독히 지방교육사업과 사회사업에 적지아니한 기부를하야 일반은 감사지안는사람이업다한다

蠶繭共販所의 至急增設要望

【長湍】개풍군(開豐郡)은 관할구역이 십오개면(面)이나 되여상당히 광활한터인데 곳치(繭)공동판매(共同販賣)장소를 군청구내(郡廳構內)의 여현(礪峴)두곳에서만 시행(施行)하는터임으로 림한면(臨漢面)등지의 양잠가는 공동판매장소까지 확십리이상의 거리가되여 단하로에는다녀올수 업슴으로 이일간은허비하여야 됨으로 비용이태과하나는 관계도 잇슬뿐더러 부녀자가 능히가저갈것이로되 거리관계로 남자(男子)장정이 운반하게되여 이앙(移秧)과 제초(除草)시기에 크게곤난을 격게됨으로 림한(臨漢) 흥교(興敎)면등지의 양잠장려(養蠶獎勵)는 진척하지아니할것이 사실임으로림한면 월암(月岩)등지에 수견장(收繭場)을세워 대성면(大聖面) 광덕면(光德面)일부와 중면(中面) 흥교(興敎) 림한(臨漢)면등지에 양잠가의 편의를도모할필요가잇다고 절실히늣겨마지아니하는바이다

麥嶺의農村에 賭博만盛行 素砂에서三名逮捕

【富川】작년의한재로인하야 밀려나려오는 춘궁과 요사히한발로말미암아 일반의 불안은 시각으로 늘어 마음을 조리고잇슬때에 "내배야 누가다치라" 하고태연무심으로 도박을하다가 체포되사건이 잇다 그내용을 듯건대 요사이 한재로 인하야 흉작을 념려하고 조바심 치는 이때에 경관의 이목을 피하야 주야로 도박을 한다는 소식을듯고 경인선 소사역 소관주재소는 수일전부터 엄중한조사를 하여오든중 이십구일오후두시경에 소사역전에서 음식점(飮食店)을 경영하는 리상두(李相斗)(五○)방에서 주인 리상두와 정치문(鄭致文) 염상복(廉相福)외사인이 도박을하다가 소관주재소원에게 습격을당하자 한명은 번개가티도주하고 우기삼명만체포되여 곳인천서로 인치하엿다하며 일후는 발견하는대로 엄중한 처벌을하리라한다

入札價格을故意低下 乾蝦의販路가杜絶

不徹底한京畿道水產聯合會의統制로 西海岸漁村에大打擊

【仁川】인천 근해각어촌으로부터 생산되는건하(乾蝦)의생산고가 매년이백만원을 초과할뿐아니라 종업원이오천여명에달하고 잇는만큼 판로문제가 가장중대한바 소화십년구월에 경기도수산연합회(京畿道水產聯合會)가창립된후 즉동회에서 부내에거주하는 중국인 오명에게 한하야 이를입찰식으로 매도하여왓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에일으러 막대한 돌변을일으키여 건하업자에게 가장큰지상을 일으키게하얏슬뿐아니라 동회에대한 비난만이 격렬화하고잇다한다 이는 건하의시까지 매모에십오원전기 건하상인 중국인오명이입하든것을 지난십일 입찰당시에을모아 팔원으로 입찰을하얏슴으로 생산자들은 팔지안코 오늘까지 미루워오다가 수일전재입찰을식히니 또한칠원을 써너헛고 그다음에는 사원을써너헛다 할수업시 당업자는 결속하야 직수출(直輸出)을 하야손든바 연합회에서는 그것역시 구전(口錢)을 밧는무리한조건이잇다 그러나 구전도 사십부개종목에달하는 가혹한형편이잇서 당업자의 원성은 자못크고 도로서도미창(米倉)모양으로 창고에 입고를 식혀 그것을 담보로삼고저리자금융통을하야 상품은 시세조흔 추기에 매도토록 통제하야주지안코 구전만바드라고개인매매를 금지식혀 통제하는의의가 나변에잇는지 서해안일대에 가장 큰문제가되여잇다한다

春川에디부스流行

【春川】춘천읍(春川邑)일대에는 여름에 흔한 각종의 전염병이 창궐하야 일반시민에게 적지안흔 불안을 주고 잇는데 지난삼십일 도 농무과(農務課)과원중"파라디부스"환자가 한명발생하얏슴으로 도위생과에서는채(蔡)기수를 필두로 출동하야농무과내 전부를 소독하게되여대청소를 일우엇섯는데 여하간음식물에 각별한주의가 필요하며 익지안흔 과일등에 특별주의할 필요가잇다고한다

長湍에도毒黃蛾 撲滅시킬方途가업서서困難 住民保健에重大問題

【長湍】경기도장단지방에는 작년에도 노랑나비(黃蛾)의습래로 일반주민이 고통으로지냇섯는데 금년에도 역시 장단지방일대에 노랑나비가 발생하야 주민들을 괴롭게한다 그노랑나비는 밤이되면 환한불비츨해하야 무수히 군집하야 난무하는데 그나비의 가루가 사람의몸에 닷기만하면 말할수업시 그자리가 가려워서 견대지를 못할지경까지 이르는바 더욱이 어린아이들은 글거서 그자리에서 진물이나와점점번진다고하야 일반은공황중에 지낸다 그로인하야 일반상점에서 밤만되면 전등불을 모도끄고잇는현상으로 주민의불안이적지안흘뿐만아니라 일반의보건상 중대문제라고한다

一日부터實施한 "고무"車輪이全無

車夫를울리는百七十圓의費用 仁川府內의奇現象

【仁川】칠월일일부터 우마차와손"구루마"등의 차륜(車輪)을 고무로 박구기로하야 우선경기도내부터실시케되얏든바 인천부에서도 월여전부터 이를장려키위하야 견본마차를 부청압광장에 내여노코 일반에게공개하엿스나 하등효과를 엇지못하고고무로 차륜을박구기에는 일백칠십원이란비용을 요하게됨으로당업자에게 공오십만 더하야지고 실시한다는 칠월일일에는 부내전체를통하야 차륜을고무로 교대한마차는 하나도볼수업는 거현상이라한다

京畿道春繭出廻 十八萬貫突破

경기도 농회에서는 공동판매 춘견출회(春繭出廻)는 작년에 비교하야 다소 소립(掃立)에 감소하엿슴에도불구하고자못조조를 나타내여 작년유월십 십일까지에 발서 십할만관(貫) 금을마금하는 날까지는 더욱상당한출회가 잇슬모양이다 그러고작년동기의 출회는 십칠만삼천관이엇섯다

觀光仁川의豪華

水仁鐵道와松島遊園 오는二十日부터一齊開始

【仁川】산간벽지의 무역과 교통망의 안전을도하야 약일년간의 공사와 이백만원의 공사비로 부설중이든 수인(水仁)철도는 그간 만난을 무릅쓰고 착착 진행중이든바 공사도 대채로 완료되야 오는십구일은 시승식을 거행한후 이십일부터는 정식으로 계통케 되얏다는대편로(片路)소요시간이 일시간십오분에, 달한다하며 이와한가지경인지방에 유일한유원지 송도유원(松島遊園)도 가튼시일에 개원을하게되얏다는바 동유원은 풀푸른장과 조어(釣漁)장 해수욕장 "호텔"존등의시설의완비가 잇서 그야말로 관광인천 무역인천으로서 일대호화를자랑하게하리라한다

仁川 納涼童話會
▲時日 七月三日(土)午後八時
▲場所 松峴町基督敎會
◇主催 松峴敎會幼年主日學校
◇後援 朝鮮日報仁川支局

開城 全朝鮮團體庭球大會
▲時日 七月四日午後十時
▲場所 水岩山球場
▲申請 七月一日午後四時까지
◇賞品 優勝旗及副賞授與
◇主催 高麗靑年會體育部
◇後援 朝鮮日報開城支局

醬油調味料 昭和アミノサン釀造所 (營業案內書進呈) 釜山府佐川町三四四番地

國民中學講義錄 緊急處分大投賣斷行
左記國民中學全科講義錄十二卷十二冊合本定價十二圓인대今回整理를爲하야但只一圓五十錢에投賣함(前金注文決賣廿一錢代引은發送費共一圓九十五錢送付할것) 로申込次第荷造發送함 賣切되기前에至急注文하라!(萬一不合時는返金)
立身出世는中學에서
中學全學期 十二卷十二冊合本을단지一圓五十錢에投賣합
●小學卒業後上級學校에못간다고悲觀하지말나!
●단지一圓五十錢으로中學卒業과同等의學力을어든다
緊急處分으로內容見本은업다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西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 現代出版社

至今곳注文하시요 最高級心差軸式 アイスケーキ機械 (カタログ進呈) (特價發賣中) 朝鮮代理店 釜山府佐川町 森近分店

絶對保證 芝罘白菜 滿洲安東縣大和橋通 芝罘農場出荷部 振替大連四七八四番 (營業案內無代進呈)

名藥案內 간질 秘方의간질약 京城鍾路四丁目五 光製藥社 電光二一四三番

外科·性病科·內科 醫學博士 金晟鎭 京城府瑞麟町一七 電話光化門一一三九〇

恩給 最長期及短期 極低廉立替 人士의取引은有利敏速히應 京城鍾路三丁目七七 鄭商會

慢性急性 淋疾 オキナリン 定價一圓·二圓·三圓·五圓·十圓 各地有名藥店에다잇다
攝生法
一、淋疾에걸린사람은患部를만저서는안된다
二、酒類를一切禁할것은勿論炭酸瓦斯의飮料도禁해야한다
三、食物은淡白하고消化잘되는流動飮料를먹어야한다
四、淋病에第一效果잇는オキナリン을連續服用할일
製造元 山本回生堂製藥所 朝鮮總代理店 株式會社 木村藥房 京城府本町四丁目 弊店은安心하고去來할수잇는藥品賣藥卸問屋이다

自動車運轉者養成 公認 東亞自動車講習所
◆運轉手試驗ニ合格セントスル者ハ來レ ◆今ガ入學ノ絶好時期 ◆練習車 練習場完備朝鮮第一 ◆絶對責任教授 學費最低廉 ◆就職無料紹介
場所 京城府若草町大通リ 經營 元京畿道運轉者試驗官 溝見良 電話本局六七〇四 (學則送呈參觀歡迎)

昔も 今も 効能で賣れる 七ふくひえぐすり
효능으로팔리는 시찌후꾸히에구스리
効能 上氣를引下하고通便을좋게함 梅毒淋疾諸毒을除함
藥價 半週分廿五錢 一週分五十錢 二週分一圓 三週分一圓卅錢 五週分二圓 送料十錢 海外四十錢
大阪高津表門筋 本家七ふくや伊藤長兵衛 振替大阪九七三·電南七二九

ミヒ顏油 ユキワリミン 유기와리민 お化粧下に 後に
朝夕한방울로 그러케頑固한 여드름도업새저 (京都 上田 茂信) (前略) 나는小學校以來 여드름에 생기고 ... (後略)
無代進呈 ユキワリミン見本一個를本舖로보내주시는분에게安全面刀及研器一個를無代進呈합니다
五十錢·一圓(藥用) 三十錢·五十錢(化粧用) 藥店 化粧品店 데파-트에잇서
東京·芝·高輪 藤澤合名會社 電話高輪二六三·三九七一

各銀行上期業績 모다餘裕잇는決算
內容充實코配當据置

朝鮮內各銀行은 六月三十日로써 上半期業績을모다 알게되고 今月末頃或은 八月上旬定時總會에 右決算案을 附議하야 査定할터인데 上半期의朝鮮內各銀行의業績은

一、物價騰貴에依한 貸出依數의增加
二、預金의利下透徹에依한 資金코스트低下
三、不動産의値上에依한 固定貸의整理進捗
四、貸金回收率의好轉에依한資金回轉率의順調

等에依하야 一般으로 收益이增加되고 各行이모다 相當히餘裕잇는決算을示하얏스나 利益金은 諸償却、社內保留에充當하고 配當은各行이 堅實方針으로써 据置키로內定하얏는바 各行別의業績은 如左하다

▲鮮銀=아직 各支店의報告가未到임으로 期末數字는判明치안흐나 預金은大體二億九千萬圓、貸出四億三千萬圓으로前期末에比하면 모다 二三三萬圓減少이나 前年同期보다는 增加되엿다 滿洲關係의撤退를 考慮하야 朝鮮內의 金融激增과 在中各支店의 積極的活動에依하야 收益狀態는조코 利益은 借入金의償還其他償却에 充하야 配當은四分据置方針、總會는 八月十一、二日頃豫定이다

▲殖銀=預金貸出은各支店報告가未着으로 判明치안흐나 勿論前年보다는 增加되겟는데 一方不動産의 値上에依한 回收成績도 百%의 好績으로 收益은 約一〇萬圓의增加이며 配當은九分据置로하얏는바 總會는八月十四五日頃豫定이다

▲商銀=期末帳面은 預金五千二百十三萬二千圓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二百十萬圓增 比前期百萬圓增、貸出은六千二百十八萬九千圓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五百六十三萬圓의增加를 示하고 收益狀態는 良好하야 比前期百萬圓의增加(公表利益은 十七萬二百八十三圓)를計上하야 配當은 三分据置 總會는七月二十三日豫定이다

▲漢銀=期末帳面은 預金二千六百八十四萬八千圓으로前年同期에比하야 三十七萬六千圓減少 貸出은 三千八百四十六萬圓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三百六十八萬六千圓의增加를示하야 公表利益은九萬一千九百十六圓(前年同期에比하야 四千九百十三圓增加)인데配當은 年三分据置方針 重役會는 七月六日 總會는二十三日豫定이다

▲貯銀=當期 總利益金 二、〇八一千圓 當期損失金 一八三六千圓 純利益 二四四千圓 前期繰越金 五五千圓 合計利益金 三〇〇 으로 八萬一千圓의 諸償却을 行하얏고 利益金은 前期보다 四百八十圓十六錢이다.

그리고同行은 지금까지에 不動産處分에 依하야 獲得한 利益三三萬圓을 社內에 保留코잇다는데 公表利益에 前期繰越金一萬二千百二十七圓二十九錢을 加하야 合計九萬六千八百十五圓十六錢의 利益金으로 하얏는데 配當은 年二分据置內定이며 二日에重役會를 열고 決算案및 日前에 鮮銀으로부터 發表된 改善案에依한 ...

▲東銀=期末帳面은 預金一千五百一萬八千五百二十一圓 三十六錢으로 比前期三百三十五萬圓增 比前年同期 二百十五萬圓增인데 貸出은 二千百二十一萬二千三百二十二圓 五十九錢으로 比前期 三百二十一萬圓減少이오 比前年同期 一百二十萬圓增인데 今期純益金은 二萬二千六十七圓四十五錢이나 前期繰越金二萬二千九百二十七圓二十九錢을 加하야 合計九萬六千八百十五圓十六錢의 利益金으로 하얏는데 配當은 年二分据置內定이며 二日에重役會를 열고 決算案및 日前에 發表된 改善案에依한 ... 千四百七十七圓의 增加를 示하얏는데 配當은八分据置內定 總會는二十六日豫定이다

▲海銀=當期利益金二萬七千四百十二圓 前期繰越金二萬二千九百四十四圓으로 合計四萬二千九百四十四圓으로 配當은 年四分据置、總會는 七月二十四日午後一時開催豫定이다 役員改選件을 總會에附議할것을 正式으로 決定케되리라는데 總會는二十三、四日豫定이다

殖銀後任理事

富永文一氏로內定

殖銀理事後任은 有賀頭取와 總督府와의 協議結果 專務局長富永文一氏로 內定하고 富永氏는 近日退官、八月中旬의 同行定時總會에서 選任케될모양이라한다

漢銀支店長會議

漢城銀行에서는 林頭取新任에伴하야 七月八日부터 二日間 各支店支配人을 召集하야 支店長會議를 開催하기로 決定하얏는데 業務上協議를 하리라한다

朝鮮對外貿易 輸出額大飛躍
六月中은最高記錄을突破햇고 上期中에(四年以前)年額凌駕

日本全國의 對外貿易은 大端히惡化되고잇다는 이때에 輸出에比하 안되나 朝鮮은 滿洲國을背景으로 하고 南洋中國方面으로移出貿易은 大飛躍을 보이어! 六月中은 從來의 輸出貿易의最高記錄이든 本年四月의輸出額一千百四十三萬五千圓을突破한 一千百四十六萬三千圓에達하엿다 前年同期에 比하면實로九割五分의 激增을보여 出超三十一萬圓이다 또一月以後 上半期의 累計를보면 輸出額은 昭和九年以前의 輸出年額을 벌서 超過하엿다 上半期輸出入品價額을보면 (千圓單位)

	比前年同期	
▲輸出		
朝鮮産	三八、〇五〇	一〇、〇四九增
日本內地産	二、五〇一	七一四增
外國産	三九、〇九四	一一、〇九四增
計	四〇、二七一	一一、五〇九增
▲輸入	一二、三二四	一、二〇七增
▲合計	五一、五九五	一二、六一六增
▲出超	二七、九四七	—

인데 輸出品中 重要한것으로는 綿織物이 最多額을 占하야 六月中一百三十八萬三千圓으로 二百八萬九千圓增 다음이 木材가 二十八萬七千圓으로 二十八萬一千圓增 其外는 入造絹布百三十七萬七千圓으로 二十八萬圓增을보앗고 그外는 그中人絹外는 大部分朝鮮産物이다 輸入品은 原油、重油의 百七十九萬餘圓、豆類百四萬餘圓、石炭、機械類가잇다

▲出入超(入)二四、九二〇(入)二四、九三三減이고 六月中의 輸出入品價額을보면 (單位千圓)

今年輸出 一億二千萬圓?

六月中의 對外貿易은 斷然出超를示하고 本年上半期의 輸出總額은 이미 五千八百 六十七萬四千圓임으로 本年中의 輸出總額은 一億二千六百萬圓을 突破할것이 豫想되어 輸出入總額二億五、六千萬圓이라는 未曾有의 活況을呈할것으로 觀測되는바 이제昭和六年以來의 上半期및年期輸出額을 示하면如左하다

年別	上半期輸出額	年計輸出額
昭和六年	五、八七六	一一、七七一
七年	一五、一〇五	二九、二〇五
八年	一九、二五一	五二、七七三
九年	二五、八四八	五七、六七三
十年	二九、四七九	六四、九〇二
十一年	三三、一二三	七五、一六五
十二年	五八、六七四	

(單位千圓)

米倉入庫狀況

米倉會社의 入庫狀況은 昨年의 不作關係로 前年에 比하야 朝鮮米가 三割二分 雜穀類가 一割七分의 各減退인바 이에反하야 肥料十一割一分 以十四割六分 雜貨類九割六分이 各激增되엇다 이것은 米穀類의 減退를 補하고저 米倉이 努力한結果로서 各勝港地와 一般商業倉庫로서의 機能에進한것은 農業朝鮮에서 工業朝鮮으로드러가는 過程의 反映이라하는바 米倉今期의業績은 大體前期와 大差업시 采觀되다한다

總噸數는 九千七百四十七噸의 增加이엇다

工事四割은 明年으로넘어갈듯

本年度의 各種土木事業은 半島未曾有의 彪大量을示하야 이에要하는 總工事費는 實로二億圓에達하고 同工事에要하는 勞働者延人員은 三十五萬人을 突破할모양인데 總督府에서는 勞働需給의 圓滑을 期키爲하야 一萬五千人의 斡旋計畫을 樹立하고 其中一萬二千人은 西北朝鮮地方에의 輸送을終了하얏스나 現在新規工事의 出願은 總工事豫想의 二割程度로 昨年度의 繰越工事임으로 今後例年과가티 出願이잇드래도 總工事의 六割程度로 終하고 四割以上은 明年度에 넘어가리라고 觀測되어 從하야 明年度의 勞働者需要는 著增되리라 한다

後期分石油配定發表

殖産局發表=朝鮮內石油業社에對한 本年度石油販賣配定은 前期分을 配定하엿는바 이제內外社別年額販賣에對한 比率을示하면 如左하다 (單位킬로噸)

種別	外社	內社
揮發油	四九、六〇〇	八、一〇〇
燈油	四八、一六〇	四八、一三三
輕油	二、〇〇〇	二六、〇七七
機械油	一六、四〇六	一六、八〇〇
重油	一九八、八〇一	一六、二三二
計	一〇四、二九九	一〇七、〇二四

米移出依然減退
粟輸入도줄어들뿐

朝鮮米의 移出은前年의 凶作에 由來하야月次減退의 傾向을 보이엇는데 昨年十一月以降 六月까지의 移出量을보면 前年의 七百七十七萬四千餘石에 對하야 今年은 五百九十萬千餘石으로 百八十六萬七千餘石의差를 보이고 잇다 또六月中의 移出은前年의 七十四萬三千餘石에對하야 今年은 五十萬七千餘石으로 二十三萬六千石의減을보이엇다 從來의 例를보면 六月까지가 大體移出이잇고 七月부터는 極小數임으로 今年度末까지의移出은 만허야 七百數十萬石에 멋지안흘까하는觀測이有力하다 또 粟輸入은 六月末까지가 前年의 九十六萬二千餘石에對하야 今年은 六十八萬一千餘石으로二十八萬一千餘石의 減少를보이고잇다

臺灣米一期作 收穫豫想
◇大體平年作

總督府農林局에온 報告에依하면 十二年度의 臺灣米第一期作收穫豫想은 作付面積三十萬四千百五十甲、收穫豫想四百五十五萬百九十二石으로 前年에 比하야 作付面積六千七百十三甲、收穫高十八萬八千三百十九石(三%九七四)의減少이다 右調査는新調査에依한 六月一日現在로 南部地方旱害、局部的으로 病害의發生이 잇섯스나大體平年作으로觀測된다

三井과東洋레온合作 朝鮮레온創設
資本一千萬圓의

三井物産京城支店에서는 朝鮮人絹製造業 有望性에 着眼하고 朝鮮內各地에 就하야 企業調査를하던바 東洋레온과 合한 本年度內에資本金一千萬圓의 朝鮮레온株式會社를 新設키로 決定하고 今秋부터 工事에着手하리라한다

新會社는 三井物産과 東洋레온兩社가 半額出資하야 朝鮮에本社를 有한 新會社를 設置할 것으로 工場設置는 慶南勿禁에 豫定이오 이미 三井系에서 五十萬坪買收를 行하얏다한다

當初의 第一期計畫은 人絹日産十噸을目標로하고 繼續하야 三十噸까지 擴張할計畫이라하며第一期建設資金은 一千二百萬圓을 要하리라한다

煙草製造豫定數量=專賣局七月分煙草製造豫定數量은 口付合計一千三百四十萬本、兩計合計四億四千三百六十一萬本、荒刻合計百二十六萬九百瓩이라고

染工聯挑戰에 朝鮮側에서反擊

日本染工聯에서는 朝鮮의人絹染色加工의 一元統制로써 斷然挑戰態度인데 關係方面에 大衝擊을 與하얏다 朝鮮人絹染色同業組合에서는 二十八日의 理事會에이어서 三十日午後四時부터 總督府燒井商工課長、石井技師等關係官이 臨席하야 慎重히 對策을 協議한 結果먼저 日本內地의 當業者와의 事情을 商工省에 認識케 하는것이오 商工省의統制限度를 同調하야 朝鮮側은 商工省에對하야 그輕減을 依賴하기로되엇다고

專賣局紀念日
今日第一回擧行

專賣局에서는 專賣精神의 振作高揚을 期하야 專賣事業公의 恩念함을찰에 資키爲하야 每年七月一日을 專賣記念日로 制定하고 今一日午前十時부터 第一回紀念式을 擧行하얏는데 同記念式에서는 專務功勞者의 表彰을行한바 受賞者氏名은 如左하다
▲朱安出張所技手、阿川伊太助 ▲麗採務出張所監夫長 李泰善

五月末現在船籍數

朝鮮에 船籍을가진 汽船總數는 五月末現在、調査에 依하면 府로부터 商工省에對하야 그輕

寸鐵

○ 朝鮮의 對外貿易은 輸出新記錄續出로 上期中에 四年前年額을 凌駕
○ 이것은 무엇인고하니 大陸本朝鮮進出에 依한 朝鮮産業發展에 基한것
○ 그러나 全國統計로서는 朝鮮의 輸出이幾分을엇다고 國際貸借改善에는 어림도 업스니 걱정
○ 佛蘭西는 法貨平價再切下決定 切下가 언제까지 繼續되려는고?
○ 各種土木工事의四割는 明年으로 밀리리라고.이런土木景氣에 勞賃이나 두둑이주구려!
○ 各銀行決算은 內容을充實히하고저 償却을만히햇다고
○ 銀行은 다른것보다도 經營이健實해야하는것 남의마른돈가지고 빗노아먹는營業이니까……

今日의市勢 (一日)

株式 突發事件 反落

前場波瀾 昨後場의 路上上放後 突然黑河事件이 發生하야 人氣惡化하야 氣配는軟化하엿든데 今朝의外電은 스탈린株의二弗錯으로 市場은意外의波瀾을演出하야 東新은一圓五低 鐘新一圓五低로 寄付하엿든것이 强氣의再買로 東新은 다시六圓六을보이고 鐘新은二百八十一圓四까지 올랏스나 利喰物과戻賣物로 反落되어 東新은 다시五圓丁까지 滑下하고 鐘新도二百七十九圓丁을보인다음 東阪低에不拘코 逆日歩에支援되어 鐘新二百七十九圓五 東新百五十五圓三으로 前場을마치엇다

後場低保 後場은東新二高 鐘新五高로少堅調에寄付한後 依然形勢觀望으로 再起치못하고幾分軟調에大引되엇다

意外의大波瀾

一個月餘에亘한 大揉合거친後、當限落後의 人氣轉換 外때를가리한 金融緩和의물결에 따라 月末掉尾一振의 上放을보이고말엇는데 佛蘭西의 平價切下로、佛財政의 今後도安定될것잇는것等 世界經濟情勢도 好轉되는中에잇서 相當한活躍이 期待되든차에 突然黑河事件이勃發하야 人氣는다시惡化하야 全然意外의 大波瀾場面을

雜株一息模樣

昨日奔騰後이오 今朝主力株의 波瀾에따라 雜株는大體一息模樣이오 部分的으로는少高商狀을보인것도잇섯다 軍需株는 거의堅調인모양으로 日立新은昨日의四九圓丁으로부터 五十一圓을唱하엿다가五〇、八이되고 第三鋼管은 約一圓高인 四一、五를보엿스며、神戶製鋼新도 三七、三으로소 級寄高이엇다 纖維株는 區區로 東京人絹은 三一、二로七高인데 東洋모스는 四、〇八로昨後場의 四二、〇으로 一圓二의反弛이며 亞麻紡도昨夕의四三、〇으로부터 四二、〇으로 一圓反弛가되엇는데東邦人造는四二、〇으로 二圓高이엇다。日産新은三六、六十圓으로七高인데 製鍊은三六、二로 三低의鈍狀이며 日曹鐵은一圓低로다시二六、五를 보엿고 商船新은 纖維堅調로四〇、三의唱이엇다。電工新은 昨夕의四二、〇으로부터 五低인四一、五가되고 第二레젤은二八、〇〇으로거의 不變이며 日産고무는 高價保合이나 堅强하고 太平洋은五高이며 鹽水新은 一圓殺高이오 日本水産도 四二、〇으로 五高인데 商務大體 底强한바잇는것은 注目할만하다

期米 下鞘發會 堅調

前場高下 今朝는雨天으로 阪地中限이 三十四圓〇八錢인 十五丁突高와 新甫九限의 三十三圓八十五錢인 二十三丁下鞘發會를 擺하고 當은一圓七十錢인 十九丁摸騰으로 中은一圓九十一錢인 十一丁高 新甫九月限은 三十一圓七十九錢인 十二丁下鞘로發會된後 阪地三節九十一錢으로 小戾함을伴하야 中은一圓〇二錢으로 先限은六十九錢까지 昂騰하더니 結局阪地八十錢을로 反落함송했하고 七節中限은 一圓九十錢으로 先限은七十四錢으로

後場保合

後場은 三十一圓七十九錢인 一丁低로 寄付後 七十九錢에 本同價로 頑强하엿스나 保合이엇다 低弱하야 結局阪止八十六錢을로 보고 八十錢에止하얏다

新甫薄鞘發會와 當中의今後觀

今朝阪地中限은 十五丁突高인 三十四圓〇八錢 新甫九限은 三十三圓 八十五錢인 二十三丁下鞘로 發會되엿다 此에 伴하야 當地는 當限이 一圓十九丁高인 一圓七十錢으로 就中米穀數地場買로 注目의 焦點이되어 있는中限은 三十一圓 九十一錢으로 單覓 二圓高를 突破하엿스며 新甫九月限은 僅히 十二丁인 三十一圓七十九錢에 發會한後 當中의 反撥과 相映하야 도强에 一考를 要할것은 時期가 天災期인만치 當上의 一兩一殺을 注目치 안흘수업는데 西北地方은 아직도 雨量이 不足하야 依然早魃을 期待하는 中이므로 好雨量

中限의今後와 强硬派의論據

當地中限은 三期中가장注目을 끄는 限月로서 今後의決戰이大壯觀을 呈할모양이다 硬派는主張하되 入限은가장 深刻한減穀期에 受渡하게되는만큼 渡米의蒐集이容易치못한時期일뿐아니라 今年은 더욱이朝鮮의 在米가稀薄하야 買方이受米를 하려하는 때는 賣方은 結局退陣을하고야 말것을 豫期하고잇스며 賣方은 此에 反하야今後天候가 不順인 때는 農家의賣物이 稀薄하다고 볼수잇스나그러나 암호로好順을 機續하야 豐作의謳歌를 呈하는 때는 産地의賣急으로 集散地의 在米가豐富할것이오 딸아서渡米의蒐集이 意外容易할지도亦未知

市場六感

㊑……東洋紡의 三倍增資決定을入하야 이를動機로 昨夕의 奔騰이되엇다나 ▲이는假性的인 晴合이니 動機는動機 일지모르나 上放은採貨와가리 二個月餘의 底價鍊鍊으로 伸力을培養한까닭 ▲그러므로此波瀾과 一落으로 六感子는 惡化될市勢라는데 同意할수업는걸 ▲大局으로보면 亦是押目買方針이 宜當치안흘가?▲勿論大衆으로서는 大勢보담目前이더急하니 愼重함이可!▲却說東新은 옛자리를 鐘新에게 讓渡하엿는지 終始小幅이니 東新들이可歎할일이나 時代가時代라無可奈何!

㊎……今朝의中限은 三十二圓臺를無慮히突破하엿다 先限時代에容易치못하든 高價를獲出하엿다 果然地場側의威力이 宏大한걸▲眞一압호로 一週日만阜天을繼續한다면 破天荒의 高價을演出할지도亦未知▲그러나太强則折인原則이라 市勢觀으로도 陽極陰生의一理가잇거니와强氣의勢力이 너머지는때는 弱氣의反抗은 또한强大할것도도한事實이겟▲何如間 冷靜히 「一步退하야」 此處의高價를 再占한다는것도 考慮할問題 (華山)

正米 清算高로 少高 京城續騰 定期의 好轉을보고 人氣는 必然的으로 强하다

今日財界一日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京城正米	[illegible]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當限・中限・先限 賣方・買方 數字 [illegible])

▲賣方 地場手薄、地場强氣 東側 賣方 ▲買方 地場軟派、中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新甫九限은天災期의 今後기果如何? 東京東北北陸은早 ... [illegible]

仁川續高

定期好調로 府持僞은 續騰하야 買氣가업서先待人氣이며 이에加하야 賣方水不足强하야 移出側의 買氣撤在로市價二十錢 續騰을보엿다 ... 三等三一、五〇 四等三一、二〇 銀坊主三等三一、七〇 四等三一、八〇 ...

釜山保合

續騰하야 日本內地不買로 精米側도 實用買需에 應한 手當外에는 一齊買氣가업서 市場은 閑散한 推移로 市價伸僞이엇다 ... 四等三一、八五 一等白米 一三、三〇

大邱釘着

定期尙로 産地는 先高期待를 不捨하고 依然賣渋態度이며 買方도 品薄인때라 低價買物이업서 目下 傍觀할밧게업서 市場은 極度의 閑散을 續하얏다 ... 一等白米 一三、一〇

群山奔騰

續騰하야 晴天으로 期米는 好轉을보여 奧地의 持意는 益益頑强한데 玉盤理一巡後의 今朝는 多少나마日本內地의 買物이잇서 市場은오래만에 活況이되어 市價도 實物을 움겨 二十錢奔騰을 演出하엿다 ... 一等白米 一三、七〇

木浦不變

續騰하야 市中買物이적고 淸算의 不透明을움겨 氣迷風情이나 氣配少堅하야 不變唱이다 ... 一等白米 一三、一五

株式 期米 玉 京城黃金町一丁目 仁川本町一丁目 柳來恒取引店

金銀 石土白賣 金金金買 分析 株式會社 金銀賣買會社 京城府南大門通一ノ九五 電話本局二ー三八〇番 振替京城一三四八〇番 鑛石分析

東 仁川·海岸通三丁目 期米 趙俊鎬取引店

金·白·銀·金 杉山商會

海外經濟 (一日)
銀行券 (一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大阪金利
鋼油粕·麥粉
阪神鋼粕
阪神鋼油
日本麥粉市勢
東京金銀價
金買入價
對外爲替
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正租
大阪正米標準價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本絹交織人絹
京城絹布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朝取短期
株式
東京短期
東京現株
東京短期取組
朝取短期賣買高
實定代引日步
短期主要取組高
朝取期米
大阪短期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群山期米
釜山期米
大邱期米
木浦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日本各地期米
大阪綿絲
大阪綿花
各地人絹
橫濱生糸
大阪砂糖
東京砂糖